

일제의 수산진흥정책과 울릉도·독도 일대에 형성된 일본인 이주어촌

서경순

I. 서론

II. 수산진흥정책

1. 국내
2. 국외
3. 일본 이주어촌건설

III. 울릉도·독도 일대에 형성된 이주어촌

1. 일본이주어촌
2. 주요 수산물
3. 일본이주어촌의 변화

IV. 맺음말

참고문헌

일제의 수산진흥정책과 울릉도·독도 일대에 형성된 일본인 이주어촌

서경순

I. 서론

근대는 바다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농산물보다 수산물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유럽에서는 만국박람회를 통하여 수산에 관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여 수산물의 유용성을 극대화하였다.

동양에서 수산물의 유용성과 가치를 최초로 인식한 나라는 일본이다. 1873년 오스트리아 빈 만국박람회에 공식 초청장을 받고 각 부처의 관료 및 경제인 등을 조직하여 출품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들은 박람회 견학을 통하여 유럽의 선진문화에 적지 않은 문화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이구동성으로 박물관 설립·내국권업박람회 개최·수산진흥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국가적 주요 사안이 되었다. 수산분야에서 참가했던 다나카 요시오(田中芳男)와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 또한 수산물의 경제 가치가 국가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국가의 수산진흥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본은 빈 만국박람회를 이어서 유럽 각국의 만국박람회에 계속적으로 참가를 하였으며, 수산분야에서는 박람회를 통하여 인공부화법·통조림 진공기술·포경 기술 등 선진 수산 지식 정보와 통조림 기계, 잠수기, 포경기 편망기계 등 선진 기계를 일본으로 들여왔다.

이 글에서는 일제의 수산진흥정책이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하여 이 정책을 주관했던 농상무성의 수산진흥사업을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수산진흥정책이 일본의 경계를 넘어서 주변국인 한국으로 확산된 배경 과정과 아울러 한국의 수산업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또한 수산경제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한국 내 형성된 일본이주어촌 가운데 울릉도·독도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수산진흥정책

1. 국내

수산진흥정책을 전담한 관청은 농상무성이다. 일본 정부는 1881년 행정을 개편하여 농업·임업·수산업·상공업 등 여러 산업분야를 관장하는 농상무성(農商務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농상무성 산하의 농무국에 수산과(1885년 수산국)를 설치하여 근대학문을 익힌 수산전문가를 채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산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본에서 수산기사 1호로 채용된 사람은 1873년 빈 만국박람회에 참가하였던 세키자와 아케키요이다. 세키자와를 비롯한 수산기사(기수)들이 앞장서서 수산물에 대한 시험조사는 물론이고 수산 계몽을 위하여 각 부현 순회

강연을 펼치면서 국가의 수산진흥정책에 앞장섰다.

일본 행정기관에서 수산(水産)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1877년 내무성 권농국 수산계이다. 이후 농무국 수산과(1881), 대일본수산회(1882), 수산박람회(1883), 수산전습소(1888) 등 수산이라는 용어는 일반화가 되었다.

국가의 수산진흥정책은 민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1882년 2월 일본 최초의 수산단체인 대일본수산회가 결성되었다. 발기인 6명은 東京 水産社(1880)의 설립자(나가이 요시노스케, 永井佳之輔¹⁾)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 이 회사는 창립한 1880년에 7월 『중외수산잡지(中外水産雜誌)』라는 일본 최초의 민간잡지 1호를 창간했을 정도로 수산업 계몽의 선구적인 출판사였다. 대일본수산회의 임원진은 회두(이후 총재로 개칭), 고마츠노미야 아키히토(小松宮彰仁²⁾) 친왕, 간사장,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³⁾)를 비롯하여 농상무성의 技師·技手 가운데 간사·의원·학예사로 선출되었다. 초대 간사장을 맡은 시나가와 야지로는 농상무성의 고급 관료이자 수산국 실권자였다. 시나가와를 이어서간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도 모두 국가 관료이자 실권자로서 수산진흥정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표 1> 대일본수산회 간사장(제1~7차)

구분	성명	취임
1차초대 간사장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	1882년 2월
2차 간사장	요시다 키요나리(吉田清成) ⁴⁾	1886년 4월
3차 간사장	야나기 나라요시(柳樹悦) ⁵⁾	1888년 4월
4차 간사장	무라타 다모츠(村田保) ⁶⁾	1891년 1월
5차 간사장	다나카 요시오(田中芳男) ⁷⁾	1896년 3월
6차 간사장	무라타 다모츠(村田保)	1900년 6월
7차 이사장회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⁸⁾	1909년 4월

- 1) 永井佳之輔(생몰연대 불상), 1880년 東京 水産社를 설립하고 그해 7월 편집장인 中尾直治와 民間 第1号(일본 최초 수산잡지) 『中外水産雜誌』를 창간하였다. 1882년 대일본수산회 발기인 중 1인이다.
- 2) 小松宮彰仁(1846-1903), 왕족, 1890년 육군 대장 승진, 국제친선을 목적으로 1886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 방문, 1902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메이지 천황의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일본 적십자사, 대일본수산회, 대일본산림회, 大日本武徳會, 高野山興隆會 등 각 단체에서 총재를 역임하였다.
- 3) 品川彌二郎(1843-1900), 정치가, 1870년 독일·영국 유학, 내무대서기관, 내무소보, 농상무대보, 주독공사, 궁내성어료국장, 추밀고문관 등을 역임, 1884년 자작, 大日本水産會 第一次幹事長(초대회장, 재임기간 1882.2.12.~1886.4.26.), 大日本水産會, 大日本農會, 大日本山林會에서 모두 간사장을 겸임하였다.
- 4) 吉田清成(1845-1891), 幕末 薩摩藩士, 外交官·농상무성 관료, 1865년 영국·미국 유학하여 항해학을 배웠으며, 이후 정치학, 경제학을 수학했다. 1887년 자작을 수여받은 후 같은 해 원로원의관이 되었으며, 다음해(1888) 추밀원 고문관이 되었지만 병으로 사망(47세), 현재 「吉田清成文書」가 京都大学 日本史研究室에 보관되어 있다.
- 5) 柳樹悦(1832-1891), 일본 해군(최종 계급: 해군소장), 和算家(수학자), 측량학자, 정치가, 長崎海軍傳習所에 파견되어 네덜란드식 항해술을 배워 서양 수학에 기초한 측량술을 습득하였다. 메이지시대 영국 해군과 공동 해양측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해양측량의 제일인자로 일본 연안을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을 하여 현재도 “日本水路測量の 아버지”로 불린다. 1882년 대일본수산회 창립에 주력하였고 1886년 간사장이 되었으며, 간사장 임기 중 1889년 수산전습소를 설립하여 학교운영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였는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891년 1월 15일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1888년 원로원의관, 1890년 귀족원의원이 되었다.
- 6) 村田 保(1842-1925), 명치시대 法制官僚, 정치가, 원로원의관, 귀족원칙선의원, 수산전습 2대 소장, 대일본수산회 부총재, 대일본염업협회 초대회장, 大日本缶詰業連合會 초대회장 역임, 1871~1873년 영국 유학(형법), 1880~1881년 독일 유학(행정재판법, 헌법, 자치, 형법)후 귀국하여 후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 제정을 담당, 독일 유학 당시 구나이스트와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국수산박람회에서 일본의 수산 자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계기로 귀국 후 일본 최초의 수산단체인 대일본수산회를 설립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설립 후에 어업법률학예위원으로 촉탁되었다. 1889년 수산전습소 소장, 1894년 청일전쟁 시에는 군부에 통조림 제조 납품, 1896년 일본 원양어업에 대한 보조금 요청안을 제출하였고, 1897년 원양어업장려법이 공포되었다. 1895년 수산조사회 회장, 1896년 제2회 수산박람회 심사관장, 1898년 염업조사회 회장, 1912년 한국병합기념

간사로 선출된 사람 중에는 농상무성의 수산기사 1호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와 수산기사 2호 마츠바라 신노스케(松原新之助)가 포함되어 있으며, 의원 중에 야마모토 요시카타(山本由方)는 대일본수산회 발기인 중 1인이며, 농상무성 기수였다. 이외에도 당시 수산계에서 잘 알려진 농상무성 수산지식인들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회원은 일본 전역의 어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사람을 모집하였다

대일본수산회의 임원진을 왕족 및 국가공무원이 구성하였던 점에서 이 수산단체는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라 반관반민단체이며 국가의 수산진흥정책의 연장선에서 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일본수산회는 수산에 관하여 국내 수산사정과 아울러 구미의 수산 지식정보를 알리기 위해 회보를 간행하면서 국가의 수산진흥정책에 이바지했다.

농상무성에서 실시한 최초의 사업은 1883년 개최한 내국수산박람회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일본수산발달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수산진흥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례적인 근대적 행사였다. 제1회는 1883년 도쿄 우에노 공원에서, 제2회는 1897년 고베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박람회의 개최 목적은 출품을 통하여 일본 전역에 현존하는 어선, 어구, 어법, 수산물제조법, 양식법 등을 파악하는 데 있었으며, 또한 출품 심사를 통하여 우수한 전통 어법·제조법·양식법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제1회 박람회 포상수여식에는 메이지천황이 직접 행차하여 격려사를 하였을 정도로 당시 수산진흥사업은 국가정책 중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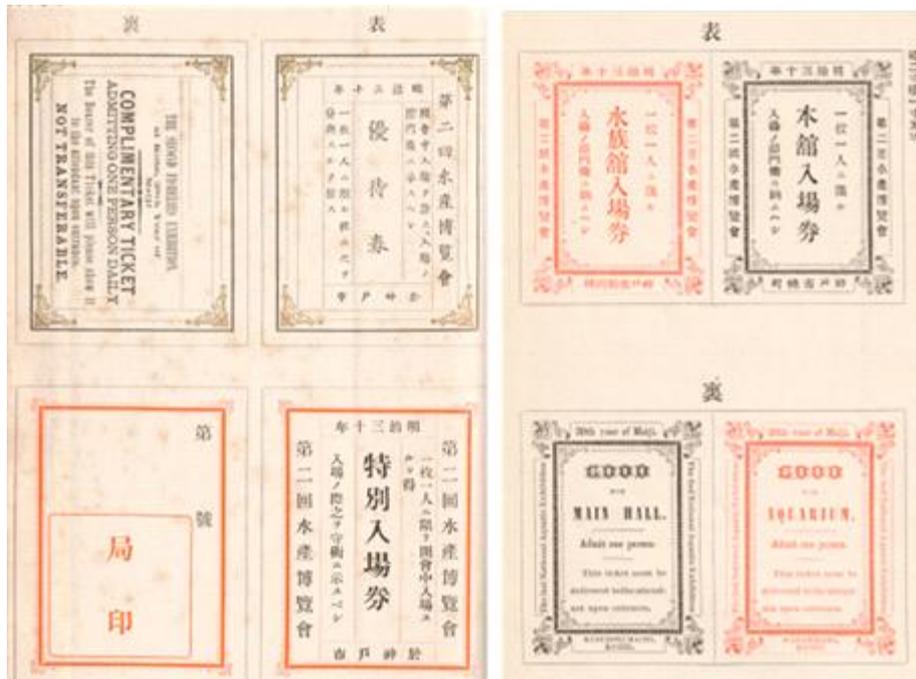
더욱이 박람회는 전국의 수산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산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던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에 별 관심은 없었지만 최초의 수산박람회라는 호기심에서 참가했던 일반인들도 수산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농상무성은 박람회가 끝난 후에 수상 출품을 어로법·제조법·양식법·도서(어보 및 통계표 등의 서적) 등으로 분류한 후 1884년 6월 『수산박람회심사평어』라는 서적을 발행하여 전국 부현에 배포하여 수산진흥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1897년 개최된 제2회 수산박람회는 제1회와 비교하면 참가 출품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회 수산박람회에 비하면 매우 진보한 양상이며, 더욱이 제2회 박람회에는 대형수족관을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당시 매우 획기적이었다. 그리고 개최장소를 고베로 결정한 것은 ‘관서부현연합회 공진회’가 먼저 개최되었는데 이를 재활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베는 일본의 상업 중심지이자 해외 무역항이었던 점에서 당시 농상무성의 해외무역극대화 정책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제2회 수산박람회를 개최했던 그해는 원양어업장려법을 공포한 해이기도 하며, 일본 최초의 수산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를 수산강습소로 승격시켜서 교육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원양어업과가 신설된 것이 이때부터이다. 원양어업과는 원양어업을 위한 선박 운용 인력 육성 과정이었다. 즉 농상무성의 원양어업장려법은 국내 수산진흥정책에서 국외로의 수산진흥정책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장을 수여받았다.

- 7) 田中 芳男(1838.9.27.~1916.6.22.), 박물학자, 물산학자, 농학자, 원예학자, 男爵, 명치시대 동물원·식물원을 구상하였고, 「박물관」이란 명칭을 만들었으며, 우에노 박물관 2대 박물관장, 원로원의관, 귀족원의원, 대일본산림회 회장, 일본원예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의 식산공업 지도 및 기초 박물학 보급에 주력하였다. 파리(1867)·빈(1873)·미국 필라델피아(1876) 등 만국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1886년 ‘일본수산지’ 기획 편찬의 총괄책임을 맡았다.
- 8) 牧 朴真(1854.4.26.~1934.4.29.), 일본 관료, 정치가, 실업가, 현지사, 중의원의원, 1898년 11월 농상무성 수산국장, 대일본수산회 이사장, 日本缶詰協會長, 大日本水産工業協會長, 대일본수산회 부총재 등 역임하면서 수산업 진흥에 주력했다.



<그림 1> 제2회 내국수산박람회 입장권(1907년)

제2회 박람회를 종료한 후에도 『제2회수산박람회사무보고』라는 결과물을 간행하였다. 제1회 『수산박람회심사평어』는 수자자원보호 및 수산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회수산박람회사무보고』는 제조분야 특히 수산물 수출품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⁹⁾

농상무성은 제1회 수산박람회를 통해서 전국의 수산 사향을 파악한 다음에 1888년에는 구미에서 시행하는 학리(學理)에 근거하여 일본 해역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전역을 5해구(海區)로 나누고 각 해역 별로, 근대 학문을 익힌 수산기사(기수)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해역의 지세, 해저 지질, 조류 변화 및 바다 생물의 종류, 성질, 발육, 치어, 난자(알) 질병 등에 대한 조사 시험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어구 어법 등의 어업상황 및 수산물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해역별 조사를 마무리한 후에 『수산조사예찰보고』(1892)를 간행하였다. 그런데 수산통계가 완전하지 않았으므로 농상무성에서 다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수산사항특별조사』(1894)를 추가 간행한 후에 도청 및 각 부현에 하달하였다. 이 간행물은 전술한 수산박람회 이후 간행했던 2개의 서적과 함께 수산관계자들의 참고서가 되어 일본 수산진흥을 한층 견인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이 서적들은 농상무성에서 수산진흥사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업자(수산업자들)들에게 필독서로 제공하기 위해 편찬했던 일본수산지 3부작(『일본수산포채지』·『일본수산제품지』·『일본유용수산지』)의 기본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¹⁰⁾ 일본수산지 3부작은 근대일본의 수산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방대한 서적이다.

9) 서경순(2021), 『메이지시대의 수산진흥정책과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편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대학원, 28~41쪽

10) 일본수산지 3부작(『일본수산포채지』·『일본수산제품지』·『일본유용수산지』)은 농상무성에서 주관한 편찬사업으로 1886년에 착수하여 1895년 원고를 완성하였다.

농상무성은 수산박람회 및 수산 현지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자 수산물 수출품 극대화에 주목하였다. 수산물 수출품 극대화는 곧 수산 경제 상 가장 시급한 과제였으며, 국가재원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미 수출 개척에는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수산물 명칭 및 규격·국제무역 서류·국제무역규칙·국제해상법 등 사전 지식이 필요하였다. 이에 인력양성을 위한 근대수산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하였다. 반관반민단체였던 대일본수산회가 학교설립을 주관하여 1888년 농상무성의 인가를 받고, 1889년 1월 20일 수산전습소라는 일본 최초의 근대수산교육기관을 개소하였다. 초대 소장은 농상무성 수산국장 세키자와 아케키요가 겸임하였고 교사진 또한 농상무성과 대일본수산회의 기사(기수)·학예사 그리고 각 분야의 박사 또는 농학사로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근대학문을 익힌 지식인들이었다. 최초 교과 과정을 어로과·제조과·양식과로 나누었다. 교과목은 수산학·기상학·경제학·물리학·상업대의 등이며, 근대 학문에 바탕을 두었다. 교과목을 교열한 한 사람은 농상무성의 다나카 요시오(田中芳男)·야마모토 요시카타(山本由方)·시모 케이스케(下啓助) 3명이었다. 이와 같이 수산전습소 또한 일반 학교가 아니라 국가의 수산진흥정책의 연장선에서 설립한 학교였다.

1897년 3월 대일본수산회 소관이던 수산전습소를 폐소한 후 수산강습소로 개칭하여 농상무성 수산조사소에 부설하였다. 수산전습소의 교사진과 학생은 그대로 승계되었는데,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수산강습소는 교육범위가 확장되어 수산전습소의 교육과정이었다던 어로과·제조과·양식과를 본과로 하고, 원양어업과, 연구과, 수산과 교원 양성과, 제염기술원 양성과 등을 신설하였다. 신설한 교육과정은 모두 원양어업진출과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일본의 수산·해양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들은 수산전습소(이후 수산강습소)가 기본 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동경해양대학(東京海洋大學)¹¹⁾이다. 수산전습소(수산강습소)의 후신으로 당시 수산강습소에서 사용했던 교안 및 자료 등이 이 학교의 도서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원양어업장려법(1897)은 연안어업에서 원양어업으로 진출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는 선박이 무동력에서 동력으로 교체되는 시기였다. 일본 정부는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원양어업에 적합한 발동기를 장착한 발동기선 및 발동기선을 운용할 수 있는 원양선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선박회사에서 수산강습소 원양어업과 학생들의 실제 현장실습 및 기술 전수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별도 지원하였다. 원양어업장려법은 일본의 수산진흥정책이 해외 확장이며, 주변국 입장에서는 수산 침탈이었다.

조선해출어시책 및 원양어업장려법이 공포되어 일본 어부들의 조선해 출어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독 통제의 시급성이 요구되자, 일본 정부는 1902년 4월 1일 외국영해수산조합법(外國領海水産組合法)을 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농상무대신·외무대신이 함께 조인할 정도로 당시 매우 긴급 사안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법안이 시급했던 것은 조선해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의 의복과 불량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일본 어부들이 혼도시라는 속옷차림으로 한국인들의 주거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우물가 등 아낙네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희롱하기를 일삼고 심지어 여인이 혼자 사는 곳을 기웃거렸다. 심지어 절도하기까지 하면서 한국인과의 심한 충돌이 빈발하자 일본영사의 힘만으로는 통제단속이 어려워 외무성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를 단장으로 한 조

11) 1888년 11월 대일본수산회 소속 水産傳習所 설립→ 1897년 3월 농상무성 水産講習所 개설→ 1947년 4월 농림성 第一水産講習所 개칭→ 1949년 5월 東京水産大學→ 2003년 10월 1일 東京商船大學과 東京水産大學 통합하여 東京海洋大學 설치→ 2004년 국립대학법인 東京海洋大學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사단이 파견되었다. 상황을 살펴본 마키 나오마사는 일본 어부들의 행동이 국가적 망신이라고 여겼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1900년 10월까지 각 부현에 조선해통어조합(이후 조선해수산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시한 후 한국 연해 출어자를 강제 가입 시키게 하였다.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은 한마디로 외국영해로 출어한 어부들을 국가가 지원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강제 가입시킨 후 감독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¹²⁾ 더욱이 1907년에는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水産組合)¹³⁾ 본부를 부산에 설치하여 외면적으로 일본 정부가 외국 영해에서 활동하는 일본 어부들의 경제적 지원 및 권익 보호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조합에 국가공무를 집행하는 수산기사들을 파견 상주시켜서 일본출어자에 대한 통제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일본의 수산진흥정책은 국내에서 국외, 즉 조선해로 그 범위를 점차 확장되어 갔다.

2. 국외

일본 어선이 바다 국경선을 넘어와 조선해에서 조업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1883년 7월에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의 제41관에 있다. 조선의 함경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연해와 일본의 히젠(肥前)·치쿠젠(筑前)·이와미(石見)·나가토(長門)·이즈모(出雲)·쓰시마(對馬島) 연해에서 양국 어부의 상호 통어가 허용되었다.¹⁴⁾

양국 간의 상호 통어였지만 한국의 경우는 연안에 수산물이 풍부하여 굳이 먼 외양까지 나가서 조업할 필요가 없었으며, 어선·어구·어구(어법) 등 또한 연안어업에 적합하였으므로 원양으로 출어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당시 연안의 남획 현상으로 인하여 실업어부들이 속출하여 연안어업에서 원양어업으로의 전환 단계에 놓여졌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조일통상장정을 빌미로 ‘조선해출어시책’을 마련하고 일본 어부들의 조선해 출어를 지원하였다. 이에 일본 어부들 또한 재빠르게 선단을 조직하여 조선해로 대거 몰려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일통상장정은 일본 어부들의 어업 갈등을 해소하는 큰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신호탄이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일통상장정을 이어서 1888년 인천해면잠준일본어선포어액한규제(仁川海面暫准日本漁船捕魚額限規則) 및 1889년 한일통어장정(韓日通漁章程) 등 계속적인 장정을 체결하여 일본 어부들의 조선해 어획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한일통어장정이 체결된 해에는 부산에 부산수산회사가 설립되어 일본 출어자들이 한국에서 조업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였다. 일본 출어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관청 및 일본 영사관에 입국신고를 비롯한 여러 행정 수속을 거쳐서 조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본 출어자들은 행정 수속에 무지하였으며 더욱이 언어소통도 힘들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업무를 부산수산회사에서 대행하였다. 그리고 부산수산회사는 어시장을 마련하여 어획물을 매입·경

12) 김수희(2005), 「어업근거지건설 계획과 일본인 집단이민」, 『한일관계사연구』 22, 한일관계사학회, 132~133쪽.; 김수희(2010), 『근대 일본 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44~45쪽.; 서경순·이근우(2019),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29~130쪽.; 앞의 박사학위논문, 204~207쪽.

13) 朝鮮漁業協會(1897)→朝鮮通漁組合聯合會(1900)→朝鮮海水産組合(1903)→朝鮮水産組合(1912)의 순으로 변경되었다. 1912년 ‘어업령’ 공포된 후 명칭을 조선수산조합으로 변경하였고 한국인(1910년 한일병합과 관계있다)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14) 1883년 7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되기 전에 1882년 조청상민수륙통상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어 이 장정(조약)의 제3조에 의해 조선의 평안도·황해도 연해와 청나라의 산둥(山東)·평톈(奉天) 연해에서 양국 간 어부들의 상호 통어가 합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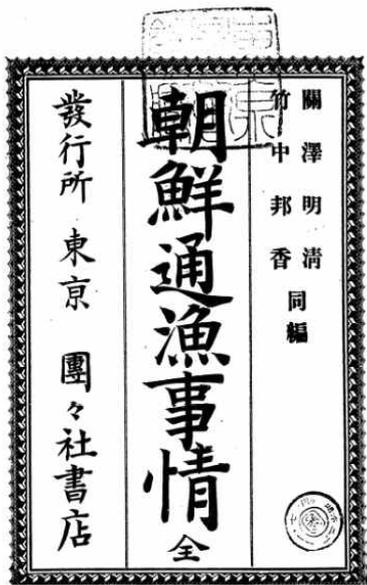
매·유통 시스템을 갖추어서 출어자들의 어획물의 처리 또한 대행해 주었다. 즉 출어자들은 어획한 후 어시장에 납품만 하면 되었다. 부산수산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출어선이 만선이면 일본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모선이라는 운반선에 싸게 팔아넘기든지 때로는 조선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성어기까지 어획한 후에 돌아갔다.

일본 정부는 조선해출어시책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상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임무는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주관하여 최초 수산국장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를 비롯한 일행들은 1892년 11월 일본을 출발하였다. 한국의 중요수산물과 각 지역의 어업 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먼저 일본 해군 소속의 조해환(鳥海丸)을 이용하여 서해안 일대를 조사한 다음, 두 번째는 부산에서 우편기선을 이용하여 부산과 원산을 오가며 동해안 일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어선을 이용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연안·부산 일대 즉 남해안 일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1893년 3월초에 돌아갔다. 다음 달 4월 21일에 한국연안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23일 『조선해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¹⁵⁾이란 제목으로 서적을 간행하였다. 보고서 형식으로 기술된 이 책에는 경상도·전라도·강원도·함경도·충청도·경기도 연안 지역에 대한 지리, 해리 및 기상, 중요수산물, 한국의 어업상황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조사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일본출어자들의 어업 기원과 연혁, 출어자의 통어규칙, 출어선 수와 어획물의 판매 제조 수익, 어업규칙·해관(세관)규칙 등도 면밀하게 조사 정리하였다.

이 책의 총론에는 세키자와의 의견이 제시되어있다. 그중 하나는 조선해 어업은 북해도 어업과 비교하면 조선해는 1년 내내 어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어획물이 풍부하고 그 종류도 많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두었으며, 더욱이 한국 연안에 상어지느러미·전복·해삼 등

의 청국 수출 품목 중 가치 높은 상품이 많아서 일본에서 조업하는 것보다 한국 연해로 출어하면 이익이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군사적 의견이다. 세키자와는 한국 바다를 러시아에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먼저 점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으로 출어한 일본 어부들이 조업을 통하여 저절로 연안의 지리·조류·해저·암초의 유무 등을 익힐 수 있으니 이들을 바닷길 안내자로서, 그리고 유사시에는 해병으로 삼을 수 있으니 먼 장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¹⁶⁾ 세키자와가 제시한 내용은 일본 정부의 조선해출어시책은 일본 실업어부들의 해결방안이자 수산물 획득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이면에 군사적인 측면 또한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당시 러시아 남하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정세가 매우 첨예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본은 자국의 영토보존을



<그림 2> 『조선통어사정』(1893)

15) 앞의 논문(「어업근거지건설계획과 일본인 집단어민」), 132~133쪽.; 앞의 책(『근대 일본 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 경영』), 44~45쪽.; 앞의 논문,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129~130쪽.; 앞의 박사학위논문, 204~207쪽.; 關澤明清은 일본 최초의 수산기사(수산기사 1호)이며, 당시 농상공부 수산국장이면서 일본 최초의 수산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1889년 개소)의 소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竹中邦香은 농상공부 수산기사이자, 수산전습소의 이사 및 교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16) 이근우(2012), 「명치시대(明治時代) 일본의 조선(朝鮮) 바다 조사」, 『수산경영론집』 43-3, 한국수산경영학회, 1~3쪽.; 關澤明清·竹中邦香(1893), 『朝鮮通漁事情』, 團々社書店, 1~5쪽.; 여박동(2002),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도서출판 보고서, 147~148쪽.

위해서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바다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세키자와 일행들이 서해안 일대의 수산 조사를 실시할 때 일본 해군의 협조 지원을 받아서 조해환(鳥海丸)을 이용하였던 것은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세키자와는 농상무성의 수산국장, 즉 정부 관료층인 점을 감안해보면 세키자와의 이와 같은 의견은 조선해출어시책 속에 군사적 계책 또한 없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농상무성 수산국의 조선연안조사는 세키자와 일행을 이어서 계속 이어져 다양한 ‘조선연안조사보고서’가 간행되어, 일본 어부 및 수산관계자들의 한국 연해에 대한 정보지 역할을 하였다.

1905년에는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하여 원양선박회사 및 승무원에 대한 보조지원만이 아니라 한국 이주자에 대한 보조지원을 추가하였다. 이 법령은 통어정책에서 이주 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하며, 이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 지원에 의해 한국 연안지역 곳곳에 일본어주어촌이 확장되어 갔다. 그리고 이곳에는 일본 어부는 물론이고 상공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일본 정주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생산 유통시설을 갖춘 수산제조회사에 염장품·통조림·건제품 등에 종사자들이 증가하면서 일본이주어촌에 정주자 수가 또한 급증하였다.

한국 내에 일본인 정주자가 증가하자 1907년에는 조선해수산조합 본부를 부산에 설치하여 부산수산회사에서 대행하였던 일본출어자에 대한 업무 일체가 이관되었다. 그러나 출어자들의 어획물의 위탁판매에 대한 것은 부산수산회사에서 계속 대행 관리하였다.

조선해수산조합본부는 통감부의 지시를 받았으며, 농상공부 및 통감부에 소속된 수산기수(기사)들이 파견 상주시켜서 조합원에 대한 일체 업무를 관리하는 한편 보호 및 감독 단속을 하였다. 한국 내 일본이주어촌 건설을 추진하였을 때 이곳의 수산기수들이 한국의 주요 어장과 토지 매입에 앞장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어장 및 토지를 매입할 때 일본 정부의 명의로 하지 않고 조선해수산조합본부의 명의로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자, 매매과정에서 마찰을 극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¹⁷⁾

이와 같이 일본의 수산진흥정책은 국내에서 국외인 한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한국의 바다를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1905년에는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하여 한국내 일본이주어촌건설을 추진하여 한국 내륙 잠식의 발판을 삼았다.

3. 일본 이주어촌건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일본정부는 일본군의 군수품 보급을 빌미로 평안도, 황해도 연안에서 일본 어부의 어업을 합법화시켜 한국의 전 연안을 장악하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농상무성의 기사 시모 케이시케(下啓助)와 기수 야마와키 소우지(山脇宗次)가 한국에 왔다가 1905년 2월 귀국하였다. 당시 러일전쟁이 한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한국을 다녀갔는지는 이들이 농상무대신에게 제출한 『한국수산업조사보고』라는 보고서형식의 복명서에서 그 의문이 풀린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¹⁸⁾

17) 앞의 박사학위논문, 206~208쪽.

18) 農商務省 水産局(1906), 『韓國水産業調査報告』, 1~2쪽(技師 下啓助, 技手 山脇宗次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황해도·평안도의 주요어장 및 일본인 이주어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연안 해도가 첨부되어 있다.); 앞의 논문(「어업근거지건설계획과 일본인 집단이민」), 133쪽.; 한규설(2001), 『漁業經濟史를 통해 본 韓國漁業制度 變化的 100年』, 선학사, 53~56쪽.; 김동철(2007), 『大日本水産會報告[會報]』의 한국관련 기사와 사료적 가치(1882-1905년), 『韓國民族文化』 30, 33~34쪽.; 요시다 케이이치(吉田敬市) 저, 박호원·김수희 역(2019),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360~361쪽.; 앞의 박사학위논문, 208~212쪽

『韓國水産業調査報告』

작년(1904) 11월 한국수산업시찰을 명령받고 진남포, 평양부터 인천, 해주, 순위도, 군산, 죽도, 개야도, 목포, 팔구도, 마산, 거제도, 부산, 울산 등을 답사하고 올해(1905) 2월 도쿄에 돌아와서 別冊에 견문 사실을 구체적으로 각하의 열람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서의 어업은 오래전에 시작하여 근래에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도 현재 통어자는 순전히 성수기에 어리(漁利)가 있는 바를 쫓아서 이전할 뿐 영구적인 어리를 도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래 영원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와 어민(彼我)의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施設)를 취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 ① 이주민(일본인)을 장려하고 한국 각지에 일본인 취락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 ② 한국 연해에 우리(일본)의 어촌을 조직하고 어민으로 하여금 점차 한국의 풍습을 익히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민을 우리나라 풍속에 동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
- ③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채용할 것.
 - (a) 어업근거지를 정부에서 취설(取設)할 것.
 - (b) 감독자를 두고 각지에서 이주해 오는 어민을 통일 정리하여 질서있는 어촌을 형성할 것.
 - (c) 근거지는 어업을 위하여 개시장(開市場)으로 간주(視做)하여 일본 선박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것.
 - (d) 한국 이주를 바라는 지방을 통일시켜 단결을 도모할 것.
 - (e) 앞의 각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및 지방 관청은 상당 비용을 지출할 것.
- ④ 정부는 재정 사정에 의해 거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a) 상당한 선박을 이용하여 전문기술자의 승조를 늘려서 조류, 저질 등 어장의 상황 및 수족의 종류, 분포 등을 조사하고 이를 공시하여 일반 방침을 정할 것.
 - (b) 통어자 및 이주민의 조합을 결성할 것.
 - (c) 이주지에 있어서 통제(取締) 감독 및 업무 지도할 것.

이상과 같이 삼가 복명하는 바입니다.

1905년 4월

농상무 기사 시모 케이스케(下啓助)
농상무 기사 야마와키 소우지(山脇宗次)

농상무대신 남작, 기요우라 케이고(清浦奎吾) 각하

이들의 복명서의 제목은 『한국수산업조사보고』이다. 그런데도 앞의 서두 내용은 제목과 달리 수산업 조사라기 보다는 한국내 일본이주어촌 건설에 따른 이주어촌 경영에 대한 보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한국에 온 목적은 한국 내의 건설된 일본이주어촌 조사와 더불어 이주어촌건설 예정지에 대한 사전 조사였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일본이주어촌 경영의 지침이 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한국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②항이다. 한국 연안에 일본 어부가 정착하여 조선인을 동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일제가 일본 출어자를 이용한 한국 식민화의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요시다 케이이치의 『朝鮮水産開發史』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조선 내에 일본 이주어촌건설

을 추진한 배경에서 첫 번째는 조선해 출어선의 조난사고가 빈번하여 이주어촌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는 러일전쟁 무렵에 일본에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 등에 따라 대만·사할린 등지로 식민지 이주가 성행하였는데 이 경향이 조선에서는 이주어촌 건설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⁹⁾ 그러나 당시 러일전쟁 중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요시다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 일제의 한국 내 이주어촌건설은 일본군 보급 군수식량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일본 정주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점에서 일본이주어촌 건설은 매우 시급한 사안 중 하나였을 것이다. 시모 케이스케가 일본 이주어촌 예정지는 경상도는 울산·옥지도, 전라도는 격음군도(隔音群島)²⁰⁾·접도·추자도·청산도·안도, 격음군도, 황해도는 초도·용위도이며 평안도에 1곳이다. 그리고 시모 케이스케는 부록을 통하여 조선 내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이주어촌 2곳을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조선해수산조합에서 구축한 거제도 장승포 근거지와 가쿠 에이타로(加來榮太郎)라는 실업가가 구축한 어청도 근거지이다.

거제도 장승포는 부지 1,200평, 황무지 약 5만평, 가옥, 사무소 등 총 구입비용이 3,405원 80전이 들었으며, 어업자 3호(17명), 매점 1호(2명)를 합하여 총 19명의 일본어부가 정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청도 근거지는 가옥 20호, 사무실 1동, 창고 제조장, 부지 3,500평 및 소나무 숲 1町 5反²¹⁾ 등이며 총 구입비용은 총 1,946원 75전이 들었다고 한다.²²⁾ 이 2곳은 모두 일본군의 군사요충지에 해당되는 곳이다.

『한국수산업조사보고』는 한국 수산업 조사를 앞세운 한국 내 일본이주어촌건설을 위한 사전 조사이며, 또한 1905년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1908년 11월에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어부들의 한국 내 조업은 바다만이 아니라 내륙부의 강·하천·호수에서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통감부는 내수면에 대한 어업허가권은 조선 정주자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내수면 어업을 희망하는 일본어부는 어쩔 수 없이 조선 이주를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본 이주어촌의 정주자 수가 증가하였다.

한국 내 이주어촌건설 정책은 결과적으로 통감부가 한국 어업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동시에 식민사업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인의 이주어촌은 자유이주어촌과 보조이주어촌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일본어부가 한국에 출어하여 스스로 어업근거지를 형성한 것이며, 후자는 일본 정부가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한 후 보조사업에 의해 형성된 경우인데 대체로 조선의 주요 어항과 전략적 요충지를 고려하여 건설되었다.

『한국수산업조사보고』를 통하여 이주어촌건설지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곳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적당한 항만이 있고 어장 출입이 편리한 곳, 둘째는 어획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곳이거나 또는 시장과 가까운 곳, 셋째는 어부들의 집과 여러 설비가 있고 채소밭도 다소 있는 곳, 넷째는 딸감 및 식수 확보가 편리한 곳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곳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을 표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이주어촌에는 한국 어업의

19) 앞의 책, 『조선수산업개발사』, 358~362쪽.

20) 앞의 책, 『韓國水産業調査報告』, 49쪽, 81~83쪽(『韓國水産業調査報告』에는 “한국인은 古群山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군산항에서 서남쪽으로 21해리(약 39km) 떨어진 곳이며 전라도와 충청도의 양도에 접하며, 큰艦隊와 巨船의 정박이 가능하여서 1894년 청일전쟁 시 일본 해군의 일시적인 假根據地였다”고 기록한 것에서 이 지명은 일본 해군에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21) 1町=3,000평, 1反=300평(反은 段을 말함).

22) 앞의 책, 『韓國水産業調査報告』, 81~83쪽.

유경험자 중에서 가족 전체가 이주할 수 있는 자만이 선정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각지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뒤섞어서 이주시켰다.

당시 정부의 보조이주어촌 건설 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곳은 나가사키·구마모토·후쿠오카·야마구치·히로시마·오카야마·가가와·아이치 등의 수산시험장이다.²³⁾ 각 부현의 수산시험장에서는 한국 내 이주어촌 건설을 위해 먼저 수산기사(기수)를 파견하여 한국 토지 및 어장 매입과 아울러 어업권을 취득한 후에 이주어촌에 정주시킬 어민들을 모집 선정하고 도항비를 비롯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당시 이주 보조금은 매우 큰 금액이었으므로 이주 신청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울릉도·독도 일대에 형성된 일본 이주어촌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⁴⁾

<표 2> 울릉도·독도 일대에 형성된 일본이주어촌

순서	연도	일본이주어촌 및 주요 어업	府縣	구분
1	1903	<p>울릉도</p> <p>1899년 이후 울릉도가 오징어산지로 알려지면서 일본 어부들의 통어가 활발해졌으며, 1902년 이후는 해조류 채집을 시작하여 일본인 단독 경영이 아니라 울릉도민과 공동 경영하였다. 1903년에는 잠수기업자가 울릉도에 와서 전복을 채취하였고 한국인을 고용하였다고 한다. 奥村平太郎의 경우는 잠수기어업 및 소라·고등어 통조림업을 개시하였다. 러일전쟁 이후에 울릉도에는 이주자가 보다 급증하였다.</p> <p>오징어어업은 오키섬(隱岐島)에서 온 어업자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06년 경 이와미(石見) 등에서 선박을 동반하고 온 상인들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²⁵⁾ 1910년 말 울릉도 일본인 이주자 수는 224호인데 대부분 오키섬(隱岐島) 즉 시마네현 사람들이 많았다. 1915년 이후는 오이타현에서도 40명이 이주하였다.</p>	大分縣· 隱岐島(시마네현)	자유
2	1903	<p>포항</p> <p>포항은 최초 일본 잠수 기어업의 근거지였는데 1903년에 돛토리현 奥田龜三형제가 포항에서 지예망어업을 실시한 이후부터 일본출어자들의 통어 및 이주가 증가하였다. 1908년 이주자는 95호인데 대부분 상인들이었고, 어부는 5호에 불과했다. 그리고 1903년에 오카야마현에서 구축한 이주어촌이 형성되었다.</p>	島取縣· 岡山縣· 富山縣· 德島縣· 山口縣· 島根縣· 大分縣· 愛媛縣· 福岡縣· 熊本縣·	자유 · 보조

23) 앞의 책, 『韓國水産業調査報告』, 15~16쪽.; 앞의 책, 『조선수산개발사』, 358~368쪽.

24) 앞의 책, 『조선수산개발사』, 부록 614~623쪽.

		<p>1911년은 도야마현에서 대부망어업을 실시하였으며, 1914년에는 청어 정치망어업에서 큰 성과를 보았으며, 1917년경 이후에는 운반선이 내항하였다.</p> <p>포항은 일본 어업근거지 역할보다도 물자교역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p> <p>그리고 1923년 도쿠시마현의 安村 아무개가 청어를 머리와 꼬리를 잘라 제조하면서 포항은 청어제품 중심지가 되었다.</p> <p>1930년대에는 이소다니(磯谷金吉)·즈보모토(坪本才市)·시타바야시(下林忠治) 3사람이 자본금 10만엔을 투자하여 마루산어업주식회사(丸三漁業株式會社)를 창립하여 동력선 6척, 무동력선 8척을 가지고 대부망, 건착망, 기선저예, 니신망(청어망)어업을 개시하였다. 당시 이 회사는 한국어부 또한 120~130명을 고용하였다.</p> <p>1933년경에는 정어리 통조림업이 발달되어 포항은 동해 굴지의 어항이 되었다.</p> <p>포항은 당시 오카야마·야마구치·시마네·오이타·에히메·후쿠오카·도야마·구마모토·사가·교토 등 여러 지역에서 온 일본인들이 정주하였다.</p>	佐賀縣・京都	
3	1904	<p><u>모포</u></p> <p>1904년 잡곡·해조류 상인 十河 아무개가 최초 정주하였으며, 1908년에 미에현의 정어리 지예망 어업자의 이주어촌이 형성되었다</p>	三重縣	자유·보조
4	1907	<p><u>감포</u></p> <p>1905년 이후에 가가와현 삼치유망 통어자의 근거지였는데 1907년에 정어리 지예망어업자 7호가 이주하였다.</p> <p>1914년 후쿠이현 龍野三之助 등이 수조망·자망(계)어업을 시작하여 통조림업을 경영하였다.</p> <p>1916년경 일본인 정주자는 65호인데 이중에 가가와현 삼치유망이 17호였다.</p> <p>감포가 고등어어업과 정어리어업이 발전하면서 1922년에는 어업조합이 결성되었다.</p>	香川縣・福井縣	자유·보조

		1923년~1926년 사이에 어선이 동력화되었으며, 1935년에는 감포가 고등어 어항으로 유명해졌는데 후쿠이현에서 온 일본 어부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5	1908	축산포 축산포는 잠수기어업 및 삼치유망의 근거지였으며, 정어리 지예망업자가 이주어촌을 형성하였다(1907년 조선해수산조합에서 이주어촌건설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축산포는 고등어·정어리어업으로 동해안의 이름난 어항이다.		자유
6	1908	죽변 1908년 5월 시마네현 수산조합에서 이주어촌을 건설하여 1912년에 일본 어부가 18호 48명이 건너와 이주하였다.	島根縣	보조
7	1908	주문진 잠수기어업자들의 통어근거지로 이후 조선 굴지의 잠수기어업의 근거지로 거듭났다. 1908년 미에현의 정어리 지예망업자가 최초 이주하였다. 1914년 말, 현재 미에현·후쿠오카현·시마네현·와카야마현·에히메현 등에서 온 일본인 이주자 수가 10호 38명이며, 정어리지예망·도미연승 어업을 하였다. 1926년 어항이 완성되고 정어리어업이 성행하여 동해 굴지의 주요항으로 거듭났으며 일본인 이주자가 증가하였다.	三重縣、 福岡縣、 島根縣、 和歌山縣、 愛媛縣	자유
8	1908	장전항 1880년대부터 도미연승과 잠수기어업의 근거지였으며, 청일전쟁 무렵에 森萬次郎의 통역에 의해 일본인들이 근거하여 어업과 상업을 겸하여 생활하였다. 1908년 가가와현에서 大西彌三郎이라는 어부가 이곳에 최초 이주한 후 일본어민들이 정주하였고 1914년은 어업자 수가 15호였다.	香川縣、 島根縣	자유

25) 오키섬(隱岐島)과 이와미(石見)는 현재 시마네현 소속이다.

		<p>장전항은 러시아 포경업의 근거지였었지만 이후 동양 포경회사의 각축장이 되었다.</p> <p>장전항 일대는 대구·청어·고등어·명태어업의 성어지인데 특히 대구어업 중심지였다.</p> <p>강원도 정어리어업의 최대 중심지로 油肥제조공장이 건설되어 강원도 최대 어항이 되었다.</p> <p>1920년대에는 가자미 기선저어업의 근거지가 되었다.</p>		
9	1910	<p>강구</p> <p>1897년경 가가와현 삼치유망 통어자의 근거지였는데, 1910년부터 최초 이주하여 1913년에는 4호가 이주하였으며 1914년 이후에 갑자기 증가하였다. 1919년 태풍과 수해로 인하여 이주어촌이 대부분 유실되었는데 1923년 한규열(韓圭烈)·市原·庄山 등에 의해 어업조합을 조직하여, 어항을 조성을 착수하여 1935년 완성된 후에는 동해안 굴지의 어항이 되었다.</p>	香川縣	자유
10	1910	<p>구룡포</p> <p>구룡포에는 배를 대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1902년 야마구치현 도미연승 50여척의 통어 근거지가 되었다. 1904년에는 가가와현 도미연승과 삼치유망, 1906년에는 가가와현 小腆-田組의 80척이 고등어 유망을 시작하였고 1909년 房長출어단의 고등어유망업이 크게 성과를 보면서 구룡포가 고등어어업의 근거지가 되어 1912년에는 일본 정주자가 47호가 되었다. 그리고 1926년 어항이 완성되자 1927년경에는 이주자가 120호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주자 중 70%가 가가와현 이주자였다. 1933년에는 이주자가 220호, 이중 어업자가 50%였는데 가가와현·오카야마현·야마구치현·나가사키현·돗토리현·미에현 등에서 온 이주자들이었다.</p>	山口縣、香川縣、岡山縣、山口縣、長崎縣、島取縣、三重縣	자유
11	1910	<p>영진(靈津)</p> <p>1910년 돗토리현의 德田平市형제가 대부망 어업을 개시하였다.</p> <p>그리고 角輸組의 주식회사가 이곳에 근거지로 삼은 뒤부터 영진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어항 개수공사</p>	島取縣	자유

		및 제빙·냉동 등 기타 설비를 갖추게 되어 조선 최대의 定置어업의 근거지가 되었다.		
12	1912	봉수진(烽燧津) 1912년 후쿠오카현 築豊수산조합에서 현비(縣費) 2,500원의 보조금으로 이주어촌을 건설하여 어가(漁家) 10호를 짓고 고등어어업을 운영하였다.	福岡縣	보조

※표의 구분에서 '자유'는 자유이주어촌, '보조'는 보조이주어촌을 말한다.

조선 내 연안지역에 일본이주어촌이 증가하면서 정주하는 일본어부들의 수 또한 증가하자 조선해수산조합 본부는 각 지역의 이주어촌의 정주자에 대한 보호 및 감독 단속을 위하여 이사청 소재지 또는 요지에 지부 및 출장소를 설치하여 조장·평의원·임원·지부장·기사·의사·서기 등의 직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순라선을 파견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국수산지』 제 1집에는 서두에 조선해수산조합본부의 사진과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다.²⁶⁾

“본 조합은 조선 연해에 출어하는 일본 어업인들의 단체이다” (중략)

1899년 6월 당시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가 직접 시찰하고 간 후 통어와 관련하여 각 부현마다 통어조합을 조직하도록 하여 1900년 5월 연합회를 조직하고 부산주재 영사의 감독 하에 두었다. 이것이 현재 조합의 전신이다.(중략) 1903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현 조선해수산조합을 발족하였다. 1907년 4월부터 조합은 통감부가 관리하는 바가 되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조합은 (중략)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조합원들의 보호 단속 및 조난구제,
- (2) 조합원의 통어출원 기타 수속에 관한 업무 대행,
- (3)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통신보고,
- (4) 조합원의 통신 및 저금·환취급 대행,
- (5) 조합원 분규 시 중재 및 조정,
- (6) 조합원 풍속 교정 및 양 국민 간 화친도모,
- (7) 어획물 판매 편익 도모,
- (8) 어선 어구 개량 및 보관,
- (9) 어장조사 탐험, 어종 번식보호 연구,
- (10) 통어자의 공적 및 선행에 대한 표창,
- (11)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필요 시설 마련

앞에 열거한 조선해수산조합의 업무 11항을 살펴보면 일본 출어자들은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원에 가입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출어자들은 자발적인 면에 앞서 조합원 소속이 아니면 한국 출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희망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했으므로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26) 農商工部 水産局(1908), 『韓國水産誌』, 第1輯(권두사진 朝鮮海水産組合本部)



<그림 3> 조선해수산조합본부

Ⅲ. 울릉도·독도 일대에 형성된 이주어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국토의 3면이 바다로 트여있으며,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며, 서해는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한국의 바다는 수산물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국가의 경제 중심을 농업에 두었으므로 어업은 소외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어업을 천시하는 풍조에 의해 수산개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도 어업인들은 국가재정·군자금·구휼금 등의 명목으로 국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더욱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하급지배층의 수탈로 인해 어민들은 이증고를 겪으며 피폐한 삶을 면치 못하였다. 어민들은 농번기가 되면 농업에 집중하는 반농반어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울릉도·독도 일대 지역의 어업세 중에는 광세(미역)·염세(소금)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항은 울진군(죽변만)·영해군(후리포, 축산포)·영덕군(강구)·흥해군(도항, 여남, 호포)·장기군(구룡포, 모포, 감포) 등이 있지만 모두 큰 배보다 작은 배의 정박지로 보다 적합하였다 『한국수산지』 2집에 의하면 울진군의 죽변만은 모래사장으로 장애물이 없고 얕아서 지예망어장으로 매우 적합한 곳으로 4~5월에 일본 잠수기선이 수심 척이 몰려와 근거지를 형성한 후에 시마네현에서 일본이주어촌을 건설하였다.²⁷⁾ 더욱이 죽변만은 울릉도로 가는 최단거리에 있는 항구로 많은 선박의 기항지였다.

축산포에서는 큰 배를 정박할 수 있어 어채물을 염장 또는 견제하여 포항과 부산으로 수송하였다. 그리고 일본 어부들의 잠수기어업·삼치유망선·정어리지예망 등의 근거지를 형성하였다. 여남포는 영일만과 마주한 곳으로 제법 만입되어 최고의 피항지였다. 또한 수심이 깊어서 상선·어선의 기항지이자 어획물의 집산지였다. 1908년(또는 1909년) 현재, 야마구치현에서 일본이주어촌 건설을 추진하였다. 울릉도·독도 일대에는 특히 울릉도 및 포항·구룡포에 일본인 정주자가 많았다.

당시 울릉도·독도 일대에 형성된 주요 일본이주어촌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²⁸⁾

<표 3> 울릉도·독도 일대의 주요어업과 일본정주자

구분	비고
영해군	수산물 : 대구·청어·고등어·정어리·삼치·가자미·가오리·방어·미역·송어·연어·은어 등 어 구 : 고등어유망·정어리 지예망·수조망·자망·외줄낚시 등 염 전 : 백석·병곡 주요항 : 축산포(丑山浦) 일본 정주자 : 12호(25명)
영덕군	수산물 : 대구·청어·고등어·정어리·삼치, 가자미, 넙치·방어·상어·

27) 農商工部 水産局(1910), 『韓國水産誌』 2輯, 389~391쪽.

28) 『韓國水産誌』 2輯, 경상도편

	<p>송어·은어·연어·은어, 뱀장어·미역 등 어 구 : 수조망, 유망, 건망, 지예망, 외줄낚시 등 염 전 : 남호·구계(제염고 약 250석) 주요항 : 강구(江口)</p> <p>일본 정주자 : 31호(77명)</p>
청하군	<p>수산물 : 대구·청어·고등어·삼치·가자미·게·복어·넙치·상어·해조류 등 어 구 : 지예망·자망·수조망·유망·연승·잡어낚시·해조업 등</p> <p>일본 정주자 : 15호(25명)</p>
흥해군	<p>수산물 : 청어·고등어·정어리·마래미·도미·미역·우뭇가사리·소금 등 어 구 : 자망·수조망·유망·예승·연승·권자망(卷刺網)·승망(柁網)²⁹⁾ 등 주요항 : 여남포·두호포·도항(島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남포에는 1910년 현재 일본 상인 1호 정주하며,, 야마구치현수산조합의 3,000평 규모의 이주어촌 건설계획 중. - 두호포는 영일만의 주요항 중 1곳이며, 일본인 정주자 많음. 야마구치현 수산조합의 이주어촌예정지 있음. <p>어 장 : 여남포 - 정치망(魚帳漁場) 2곳, 호망어장(壺網漁場) 갈마포 - 정치망(魚帳漁場) 1곳. 두호포 - 정치망(魚帳漁場), 호망어장(壺網漁場)</p> <p>일본 정주자 : 29호(108명)</p>
영일군	<p>수산물 : 대구·청어·삼치·가자미·넙치·삼치·방어·복어·뱀장어·뱅어 ·송어·잉어·연어·은어·해조류 등 어 구 : 수조망·유망·지예망·연승·자망·외줄낚시·투망(投網)·권자망 (卷刺網)·대부망(일본 어부)·평망(坪網, 일본어부) 등 염 전 : 포항 일대(매년 2만석 이상) 어 장 : 죽림(竹簾) 정치망(魚帳漁場) 주요항 : 포항 포항 : 화물집산 요충지</p> <p>1910년 현재 약 400가구 중 일본 정주자 수는 95호인데, 상업 90호 어업 5호이며, 어업자는 오카야마현 이주자 임. 포항은 각 부현 수산조합에서 이주어촌건설계획지 선정할 곳이 많음.</p> <p>일본 정주자 : 95호(356명)</p>
장기군	

<p>(長鬐郡)</p>	<p>수산물 : 청어, 고등어, 정어리, 삼치, 가자미, 상어, 방어, 도미, 전갱이, 갈치, 게, 미역, 김, 우뚝가사리 등 어 구 : 자망, 지예망, 분기망(焚寄網), 수조망, 유망, 낚시 등 주요항 : 모포(牟浦), 구룡포(九龍浦), 감포(甘浦) : 감포는 지예망의 좋은 항으로 구룡포와 견줄 수 있으며, 삼치 성어기에 일본어선의 근거지</p> <p><장기군 일본정주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포 : 일본인 상인(十河商店) 1호 정주, 1904년 기타 잡곡 및 미역, 우뚝가사리를 구입하러 왔다가 1906년부터 정주. - 석병(石屏): 정어리 지예망 1호. - 칠전 : ① 사토 아무개[佐藤某], 오카다 아무개[岡田某]의 공동 경영 석탄갱이 있음, 적치장은 모포, 칠전의 중간 지점. ② 미에현 아예군 백총촌(三重縣阿藝郡白塚村) 어부의 정어리 지예망 어업근거지. - 하서리(下西里) : 일본인 정어리 지예망 근거지 <p>* 장기군의 경우 일본 정주자가 확인되지 않음(조사자에 의하면 당시 정주 인원수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혀져 있음).</p>
<p>울릉군 鬱陵郡</p>	<p>수산물 : 오징어, 정어리, 김, 미역, 우뚝가사리, 전복, 새우, 잡어 등 주요항 : 울릉도 도동, 저동항</p> <p><울릉군 일본정주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도 도동 : 시마네현 오키섬[隱岐島]에서 이주 : 의사, 중매상, 잡화상, 어업, 운송업, 목수[大工], 벌목꾼[木挽] 등 - 닛쇼조합(日商組合) 설립, 이후 1907년 일본인회 조직 <p>일본인 정주자 : 224호(768명)</p>

※ 출처 : 『韓國水産誌』 2輯 경상도 편(1910)

앞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릉도·독도 일대의 일본이주어촌은 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일본인 정주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울릉군이며 내륙 연안지역 중에는 역시 영일군이 버금가며, 포항의 경우는 1920년경에 일본 정주자 수가 포항 전체 수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이주하였다.³⁰⁾

29) 승망어업(柵網漁業) : 길그물의 끝에 헛통을 설치하고 헛통에 자루그물을 달아 길그물을 따라 유도된 어군이 자루그물로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30) 浦項市史編纂委員會(1999), 『浦項市史』 上권, 348~353쪽.; 영일군사편찬위원회(1990), 『迎日郡史』 308쪽

1. 일본이주어촌

1) 포항

예로부터 포항 일대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한촌에 불과하였는데 만호영이 설치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물품집산지인 상업 무역항으로 발전하였다.³¹⁾

포항에 일본인이 정주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자 일본 어부들은 한국의 바다에서 보호를 받으며 조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포항은 잠수기업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이들은 성어기가 끝나면 돌아갔다. 그리고 1901년 가을,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가 포항 일대에서 해조류 거래를 하고 돌아갔다. 포항에 일본 어부들이 근거하기 시작한 것은 1903년에는 돛토리현의 오쿠다(奥田龜) 3형제가 이곳에서 지예망어업을 실시한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1905년 이후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이주어촌이 건설되어 곡물 및 해산물을 취급하는 오카모토 리하치(岡本利八)·이와사 히로이치(岩佐廣一)·오카모토 시로스케(岡本四郎助) 등을 비롯한 정주자 수가 증가하였다.

1907년 정주자 수가 36명이었던 것이 1909년 말에는 310명³²⁾으로 거의 9배나 급증하였는데 이것은 1908년에 야마구치현·사가현·오카야마현 등의 일본이주어촌 건설과 관계가 있으며, 1910년 이후에는 오카야마현·야마구치현·사마네현·오이타현·에히메현·후쿠오카현·도야마현·구마모토현·사가현·교토 등에서 이주해 왔다. 그리고 이곳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1908년 5월에 이미 조직되어 있던 일본인회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신변보호 및 이주자들과의 친목과 상호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1919년 이후에는 공동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이권을 장악하였다.³³⁾

2) 구룡포

구룡포는 영일만 일대에서는 포항 다음으로 일본 정주자 수가 많았던 곳인데 일본 출어자들 스스로 형성한 근거지였다. 1902년 아마구치현에서 연승어선 50척이 최초 출어한 이래 1904년 가가와현에서 상어·삼치유망어선, 1906년 오다구미(小田組) 선단의 고등어 유망어선 80척이 근거하였다. 그리고 1909년에는 방장출어단(防長出漁團)³⁴⁾이 고등어 유망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본 이후에 구룡포에 일본 어부들이 대거 몰려왔으며, 1910년에는 방어진에 근거하였던 일본 어부 중 3호가 이곳으로 옮겨오는 등 구룡포에 일본이주어촌이 형성되었다. 1912년 47호가 정주하게 되어 일본인들의 보호 및 편익을 위한 도로가 정비되는 한편 행정기관(役所)·경찰서·우편국이 설치되는 등 일본인 건축물 또한 증가하였다. 1926년에는 어항이 축조되어 '부산과 원산'·'부산과 울산'의 기항지가 되어 1927년에는 정주자가 120호가 넘었다. 그런데 1930년 매우 심한 태풍으로 인하여 구룡포 일대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국고 지원을 받아서 1935년에 다시 축항을 완성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구룡포라는 작은 어촌에 막대한

31) 포항은 형산강 하류에 위치하여 함경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에서 내륙 또는 해상을 통해 물산이 집산되어 중계 상업이 성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창고업·위탁판매업·운송업·숙박업 등 또한 발전한 상업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32) 『浦項市史』 上의 기록에 의하면 1914년 300호(1,090명)·1924년 511호(2,207명)·1935년 617명(2,489명)·1942년 634호(2,775명)이다.

33) 『韓國水産誌』 2輯, 476~478쪽.; 『浦項市史』 上, 350쪽

34) 方長은 周方·長門을 줄인 말이다.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서 당시 구룡포는 동해의 주요 어업기지였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당시에 구룡포의 일본 정주자 70%가 가가와현 출신이었는데 이는 전술했듯이 1904년부터 가가와현 선단이 구룡포에 근거한 것을 시작으로 고등어 유망에서 큰 성과를 본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³⁵⁾

구룡포에는 일본 정주자수가 증가하면서 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하여 통조림 및 수산제조공장·선구점·수산물운반업·조선소·양조장·음식 숙박 및 유흥점 등을 운영하는 각종 자영업자들에 의해 구룡포는 번성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3) 모포

모포는 장기군(長鬐郡)³⁶⁾에서 제일의 항만으로 어선과 상선이 모여드는 물품집산지이다. 1904년 도가와 야사브로(十河彌三郎)라는 일본 상인이 해조류를 구입하려고 왔다가 1906년에 도가와 상점(十河商店)을 개업하여 콩과 기타 잡곡 그리고 미역·우뭇가사리 등 잡화 거래하면서 근거하였다. 그리고 모포에는 칠전(七田)이라고 마을에는 해변에 미에현(三重縣)의 일본어부들이 정어리지예망 어업을 하면서 근거하였다가 1908년부터 이주어촌을 형성하여 정주하였다.

그리고 명촌(明村)에는 사토(佐藤)·오카다(岡田)라는 두 사람이 공동 경영하는 석탄갱이 있는데 이것을 모포에서 부산으로 운반하였다. 적치장은 모포와 칠전의 중간 지점에 있다.³⁷⁾

4) 울도군 도동

도동(道洞)은 울릉도의 유일한 양항이다. 일본인 정주자는 1909년 당시 224호(768명)이며, 대부분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이주하였다. 처음에는 정어리·우뭇가사리 등을 어채하였는데, 1903년 이후는 오징어를 집중적으로 어획하여 큰 소득을 올렸다. 오징어 어획기는 5월에서 11월까지이지만 성어기는 6월부터 10월 사이이다. 오징어 어업은 울릉도 도민들의 경제에 한 몫을 하였지만 일본어부들의 어획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적었으며, 따라갈 수도 없었다. 일본 어부들은 도동항 해안 일대의 어장을 독점하며 오징어잡이를 주도하였으며, 또한 오키섬의 오징어 건조방식으로 제품화하였다. 울릉도에는 시마네현 사카이항구에서 매월 2회 오징어 및 오징어 건조품을 운반하는 화물선이 왕래하였다.³⁸⁾

일본 어부들은 오징어어업 외에 김과 미역은 울릉도 도민들과 공동 채취하였으며, 우뭇가사리·전복은 일본 어부들이 독점하여 잠수기 및 갈고랑이로 싹쓸이하였다.

이렇게 일본어부들은 울릉도의 어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2. 주요 수산물³⁹⁾

35) 朴重信·金泰永·布野修司(2005), 「九龍浦の日本人移住漁村の居住空間構成とその変容」,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595号, 95~97쪽.; 『浦項市史』 上, 350~351쪽.; 『韓國水産誌』 2輯, 481쪽.

36) 長鬐郡은 지금의 포항시 남구 일부와 경주시 일부 지역을 말하며, 1914년에 영일군과 경주군에 분할 편입되었다가 폐지되었다.

37) 『韓國水産誌』 2輯, 487~488쪽.; 『浦項市史』 上, 351쪽

38) 김수희(2014), 「일본식 오징어어업의 전파 과정을 통해서 본 울릉도 사회의 변화과정」, 『대구사학』 115, 대구사학회, 276쪽.

39)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검색일:2023.09.15.); 『韓國水産誌』 2輯, 449~455쪽.; 『浦項市史』 上, 417~421쪽, 428~429쪽, 489쪽.; 『迎日郡史』, 240~245쪽, 364~366쪽, 640~645쪽, 758쪽.

1) 청어

한국 제일의 청어 어장으로 손꼽는 곳은 포항으로 청어기는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이다. 청어는 우리나라 각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이며, 청색을 띠는 것에서 청어라는 이름이 붙었다. 또한 청어는 영양가는 매우 높는데 가격이 저렴하여 가난한 선비들이 선호하여 선비를 살찌게 한다고 해서 비유어(肥儒魚)라고도 불려졌다.

청어는 흔하고 가격이 저렴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진상품·하사품·제수품·세수용 등으로 국외로는 교역품·하사품 등의 여러 기능을 하였던 중요한 어류자원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종묘(정월) 및 천신제(11월)에 올렸으며, 역대 왕들의 하사품목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그리고 국외 면의 기록에서는 교역품 및 하사품 및 진상품의 품목에 건청어(乾靑魚)가 거의 빠짐없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세종 대의 기록에는 명나라 사신들이 건청어를 요청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중요 수산물 중 하나인 청어는 울릉도·독도 일대의 지역에서는 제례용으로 대접 받았으며, 설날을 비롯한 정월에 많이 소비되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특별 향토식품인 과메기를 제조 유통하여 지금도 전 국민의 영양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1923년) 포항의 특산물인 청어가 포항 시어(市魚)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이유가 큰 몫을 하였을 것이다. 건청어를 말하는 한자 관목(貫目)은 과메기의 원조가 아닐까?

1923년 도쿠시마현의 야스무라(安村)라는 사람이 청어의 머리와 꼬리를 잘라서 제조하면서 포항은 청어제조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1930년대에 이소다니(磯谷金吉)·즈보모토(坪本才市)·시타바야시(下林忠治) 3명이 자본금 10만엔으로 어업주식회사를 창립하여 동력선 6척, 무동력선 8척으로 대부망, 건착망, 기선저예, 청어망 어업 등 기업형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회사에 한국 어부가 120~130명 고용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어는 울릉도·독도 일대의 어업 경제를 좌우했던 주요어업 중 하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주로 휘리망과 정치망으로 어획하였는데, 일본 출어자들이 표망·호망·낙망 등으로 어획하여 눈에 띄는 정도의 큰 성과를 보이자 한국 어부들도 일본 어부들의 어망으로 교체해 갔다. 낙망은 하마다(濱田)형제가 표망을 청어어법에 맞게 개량한 것인데, 호망보다 몇 배의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1920년 이후는 동력 건착망이 출현하면서 울릉도·독도일대의 청어어법은 다시 교체기를 맞이하였다.⁴⁰⁾



<그림 4> 浦項驛서 靑魚出荷하는 光景
※ 출처: 동아일보 1931년 2월 13일자 5면 1단



<그림 5> 동해안 청어 성황기
※ 출처: 부산일보 1933년 2월 9일자 4면 1단

40) 앞의 책, 『조선수산개발사』, 312~313쪽

2) 정어리[鰵]⁴¹⁾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 연안에서 잡히는 정어리는 성어(成魚)가 많고, 경상남도의 동남해 및 남해 연안에서 잡히는 정어리는 유어(幼魚)가 많다. 한국은 예로부터 날생선·건제품·젓갈 등 식용품으로만 소비하였지만, 일본은 예로부터 정어리류는 식용이 아니라 농작물의 비료용으로 어획하였는데 유럽의 만국박람회를 통하여 정어리를 착박 제조하여 기름(油)은 가정용 또는 공업용 기름으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비료로 하면 되는 정어리 유용성이 알려지면서 정어리어업은 일석이조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업이 되어 어부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한국에 정어리류의 가치가 알려진 것은 1890년경 경상도 연안에서 일본 출어자가 정어리 비료사업을 시작한 이후이다. 한국 어부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어리잡이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규모 어업을 실시하여 일본 어부 또는 수산업자에게 납품하였다.

정어리의 유티 가공은 처음에는 손으로 직접 짜서 추출하였다가 수압식 방법에서 다시 기계식으로 발달하였다. 기계식은 삶은 정어리를 기계에 넣어 압착한 후 정어리유와 찌꺼기를 추출한다. 찌꺼기는 건조 분쇄하여 비료품으로 제조한다.

그리고 정어리는 통조림으로 제조 가공하여 해외 수출품목으로 고소득을 올렸으며, 고단백 식품이었던 점에서 일제의 전시기에 군수물품으로 대량 보급되었다.

이와 같이 정어리어업은 비약적인 발전은 동시에 정어리 제조 공장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이다.⁴²⁾

1933년경 정어리 통조림업의 발달로 영일만 일대는 동해 굴지의 어항으로 알려져 오카야마·야마구치·시마네·오이타·에히메·후쿠오카·도야마·구마모토·사가·교토 등 여러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모여들었다.

3) 고등어

울릉도·독도 일대에는 봄과 여름의 교체기에서 여름과 가을의 교체기까지 고등어가 많이 회유하며, 특히 영일만의 고등어는 어체가 월등하게 크고 맛도 좋아서 타 지역과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어획량도 많아서 영일만일대 어획고 중에 으뜸이었다. 일본 어부들은 어획 전량을 부산의 부산수산회사(이후 부산수산주식회사)로 운반하여 위탁 판매하였지만, 날씨 등 상황에 따라서 이곳 한국 어부들에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1907년 8월 30일 영일만에서 일본 선박 1척이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다. 쾌응환(快鷹丸)은 일본 수산강습소의 최초 실습선이었다. 1907년 7월 7일 일본에서 출발해서 시모노세키를 지나 부산항에 도착하여 먼저 부산항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울산을 거쳐 8월 30일 영일만에서 고등어건착망 실습을 하던 중에 풍랑으로 좌초하였다. 쾌응환의 승선자는 교관 1명, 실습생 21명, 선원 14명 총 37명이었는데 이 사고로 교관 1명과 실습생 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많았으며, 쾌응환의 임무도 종료되었다.

그런데 한국 연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박인 쾌응환이 어떻게 자유자재로 현장실습을 하였을까? 그 근거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1883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을 비롯하여 여러

41) 일본에서는 정어리·멸치·보리멸·눈통멸 등 모두를 이와시(いわし)라고 한다. 『한국수산지』에 기록된 정어리는 멸치류를 포함하고 있다.

42) 앞의 논문,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139쪽.; 서경순(2020), 『日本水産製品誌』의 성립과 내용, 『島嶼文化』,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538~539쪽(1936년에 설립된 청진 정어리 제조공장은 어업시설·수산제조시험 설비 등은 당시 세계 수준급이었다고 한다)

차례 장정이 체결되어 190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전 연안에서 일본 선박의 조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강습소는 일본의 수산진흥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설립된 국립 수산교육기관이었으므로 1905년 원양어업장려법의 개정 공포에 따라 학생들의 원양 어업실습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양어업 현장실습은 학생에게는 개인 경력을 쌓는 기회가 되었으며, 현장 실습 결과는 곧 일본 출어어자들의 조업에 반영할 수 있었다. 수산강습소에서 실시했던 고등어 건착망(巾着網) 현장 실습 이후에 구룡포는 일본어부들의 고등어 건착망어선의 어업전진기지가 된 사실은 이 사실을 반영해 준다.

쾌응환이 좌초된 후, 쾌응환조난기념비(목조)⁴³⁾가 세워졌으며, 1908년 12월에는 호미곶 등대 및 암초(교석초)⁴⁴⁾에 수중등표가 세워졌다. 비록 일제의 강요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지만 안전한 항해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림 6> 실습선 쾌응환조난 기념비(2018년 12월 31일 촬영)

4) 고래

한국의 함경도·강원도·경상도 연안에서는 고래가 떼를 지으며 다닐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울릉

43) 최초 세웠던 목조로 된 쾌응환조난기념비는 1926년에 석조(쾌응환 조난 당시에 같이 승선했던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어 세웠음)로 다시 세워졌는데 광복 후에 지역 주민들에 의해 훼손되었다. 그리고 1971년 10월 재일동포 한영출(당시, 나가사키현 거류민단 부단장)에 의해 재건되었다. 현재 매년 9월 9일에 쾌응환 조난 가족 및 동경 해양대학(수산강습소 후신)의 관계자 및 학생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44) 2002년 11월 이 해저지형에 대한 지명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교석초(橋石礁)로 공식 명명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확정 고시된 해양지명에 등재되었다.

도·영일·울산 일대에 특히 많았다. 『한국수산지』 1집에는 죽변항 및 영일만일대에 세운 고래포경회사의 1906년 「포경통계표」가 있다.

동양어업주식회사는 긴수염고래 52마리(9월 13마리 10월 10마리 11월 1마리 12월 28마리), 나가사키포경합자회사는 긴수염고래 14마리(9월, 3마리, 10월, 11마리)·흑등고래 1마리(10월, 1마리)로 모두 15마리이며, 일한포경합자회사는 긴수염고래(10월, 2마리)·귀신고래(12월, 9마리)로 모두 11마리이다. 이 통계기록을 통하여 울릉도·독도일대에 회유한 고래 종류는 수염고래·흑등고래·귀신고래이며, 성어기는 9~12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획한 고래는 먼저 각 포경회사의 해체장으로 운반되어 고래고기·고래기름·고래수염·고래힘줄·고래뼈 등으로 각 해체 분리 작업을 거쳐서 전량 일본으로 수송하였다. 이중 고래고기는 일부 한국에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해체 분리한 고래는 겨울철에는 그대로 수송하지만 그 외 계절에는 부패방지를 위해 소금에 절여야 했는데 고래 1마리당 평균 소금 사용량은 무려 약 5,000근(3000kg)이었으며, 여름철에는 이보다 2배 이상의 소금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포경자의 입장에서는 여름철에 고래 3마리를 잡는 것보다 겨울철에 1마리를 잡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또 하나 덧붙이면 여름철에는 고래가 지방이 빠져나가 맛이 없어서 상품가치 또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예로부터 고래 떼가 많아서 경해(鯨海)라고 불릴 정도였다. 귀신고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동해 및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만 볼 수 있어서 일명 한국귀신고래(Korea stock of grey whale)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물론 이 명칭은 학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공식 명칭이다. 고래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부가가치 또한 높은 상품이였으며,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산업공업용의 최상의 에너지원이었던 점에서 당시 고래의 경제적 가치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근대기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구미 각국의 포경선이 출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구미를 이어서 일제에 의해 고래 남획이 연이어져 울릉도·독도 일대에서 고래가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를 즈음에 포경 금지법·포경금지 등 법적 제한을 실시하였다.

5) 오징어

오징어는 울릉도의 특산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는 5월에서 11월 사이지만 성어기는 6~9월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건오징어[烏賊魚]는 진상품·하사품·선물용의 품목에 자주 등장하며, 세종 대에는 약재에서 오징어뼈가 다수 발견되었다.

일본이주어촌 가운데 오징어어업에 주목한 것은 울릉도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울릉도의 오징어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상품성도 뛰어났지만 일본 수산진흥정책에서 수산물수출품극대화화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수산진흥정책의 일환으로 편찬된 『일본수산제품지(日本水産製品誌)』에는 범례에서 중요 수산 제품 순서로 기록하였다고 밝혀놓았다. 이 서적에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바로 오징어 건제품이다. 여기에는 오징어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건조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출품이 되는 오징어 건제품은 어떤 경로를 거쳐 수출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수출품에 대한 포장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 표본이 된 것이 오키섬의 오징어 건제품(鰹)이다. 또한 포장 그림 옆에 서류를 나타낸 그림도 있다. 서류는 3매인데, 각각 검(檢)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아마도 오징어 수출품의 원산지·크기 및 수량·포장 등 3번의 확인 검정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키섬에는 에도시대에는 오징어를 관리하는 좌방(座方)이 있었으며, 메이지시대에는 「물산

취제방(物産取締方)』이라는 오징어도매상인 연합체가 있는 점은 오키섬은 일본 최고의 오징어 산지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오키섬 오징어는 당연 상등품으로 거래되었을 것이다.⁴⁵⁾ 당시 울릉도에 정착한 일본인 대부분이 시마네현 오키섬 출신이다. 울릉도에 정주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은 1901년에 닛쇼조합(日商組合)을 설립하여 안전과 권익을 도모하면서 비교적 질서있는 생활을 하였다.⁴⁶⁾ 어부들은 울릉도의 오징어를 잡아서 대부분은 오키섬으로 운송하였다. 이점을 감안해보면 당시 오키섬의 건오징어 수출품에 울릉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림 7> 隱岐鰯荷造
 ※출처 :『日本水産製品誌』

45) 앞의 논문, 「일본식 오징어어업의 전파 과정을 통해서 본 울릉도 사회의 변화과정」, 261~262쪽.

46) 송휘영(2022),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영토해양연구』, 23, 동북아역사재단, 62~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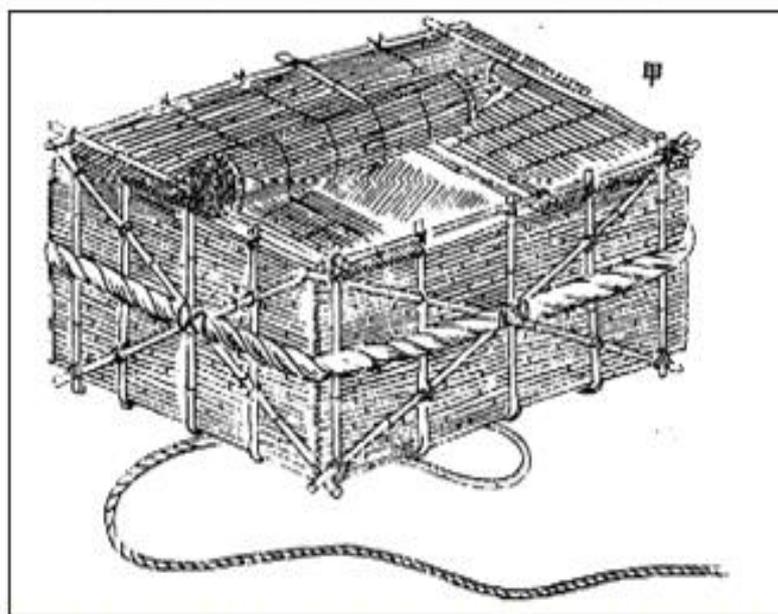
5) 가자미·방어·삼치

가자미·방어·삼치는 1년 내내 어획되지만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에서 겨울철이 성어기이다. 가자미는 10~12월이며 우리나라는 주로 수조망(手繰網)으로 어획하였는데, 일본 어부들은 수조망·타리망(打瀨網)·외줄낚시 등 다양한 그물을 사용하였다.

방어·삼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성어기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서 어획하지 않았던 반면에 일본 어부들은 외줄낚시·삼치 유망·지예망 등을 사용하여 활발하게 어획하였다. 이 어업은 일본 출어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진 어업이었다. 모포·구룡포·여남·강구·축산·죽변 등에서 단체를 조직하여 대량으로 어획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삼치를 좋아하지 않았던 까닭은 삼치를 뜻하는 망어(亡魚)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어부들도 경제적 수익을 위해 점차 어획하기 시작하였다.

겨울철이 성어기인 가자미·방어·삼치는 일본 어부들이 활주선(活洲船)을 이용하여 산채로 대거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그림 8> 簾(가두리)

※출처 『韓國水産誌 1輯 第52圖』: 활주선의 양옆에 여러 개의 가두리를 매달아서 운송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내 일본이주어촌이 건설된 후 한국의 전통어업의 변화는 물론이고 한국 수산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일본어선의 경우는 일본의 수산진흥정책 중 원양장려법에 의해 범선에서 동력선으로 교체되어 일본 출어자들은 대규모 어업을 실시하여 범선에 의존하는 한국어부들의 어획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덧붙여서 『경상도읍지』(1883년경)의 토산품목에 영일현(영일군)에는 바다수달·황어·소라, 장기현(장기군)에는 바다수달, 청하현(청하군)에는 문어·소라·三申魚⁴⁷⁾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일본출어자들이 내한하기 전만 해도 울릉도·독도일대에는 바다수달이 많이 서식하였

던 것을 알 수 있다.⁴⁸⁾

이외에도 울릉도·독도일대의 어획물이 수획 종에 이른다. 이 일대의 주요 장시는 흥해군 읍내장(2·7일장)·여천장((4·9일장), 영일군 읍내장(3·8일장)·포항장(1·6일장), 장기군 읍내장(1·6일장, 청하군 읍내장(1·11·21일장) 등이 있는데 이 장시에서 거래되는 주요 수산물은 대체로 대구·상어·방어·광어·홍합·홍어·문어·해삼·전복·김·미역·소금 등이다.

장시의 번영은 곧 상거래의 중요한 요지로 급부상한다. 일본이주어촌 중에 포항과 구룡포일대에 여러 분야의 일본 자본가들이 조선총독부의 비호아래 위탁판매업·창고 운송업·선박용품점·금융업·숙박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를 장악하여 부를 축적해 나갔다.

3. 일본이주어촌의 변화

울릉도·독도 일대에 일본이주어촌이 형성된 후 일본 정주자 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역별 각종 단체(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도시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수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단체 결성 및 제방 및 항만 공사

① 어업(수산)조합 및 수산회 결성

일본이주어촌에 어업(수산)조합을 설치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본 수산진흥정책 가운데 외국영해조합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어부들은 조선해수산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출어할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출어자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이보다는 무질서한 이들을 감독통제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방편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어업령이 공포된 후에는 이주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자 또는 수산물의 제조 판매업자들에게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을 설립할 것을 강행하였으며⁴⁹⁾, 한국 어부들 또한 가입시켜 식민지배의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울릉도·독도 일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1914년 12월 포항에 설치된 영일어업조합이다. 초대 조합장은 이곳에 처음 이주한 일본인으로 알려진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이다.

영일어업조합은 일본인은 물론이고 한국인도 또한 조합원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인들은 처음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과 불신감 등의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였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영일어업조합을 이어서 구룡포·청하·송라·양포·곡강 등지에서도 어업조합을 창설하였다.

어업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어획물에 대한 위탁판매 및 이익분배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에서는 신용 대부 등을 통한 고리대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갔다. .

1923년 1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 ‘조선수산회령(朝鮮水産會令)’이 공포되었다. 수산회를 설립하는 목적은 수산업 개량 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회는 『조선수산시보』 발행

47) 三申魚는 경상도의 방언인 것으로 보인다.

48) 『浦項市史』 上권, 266~270쪽.

49) 金奇泰 저, 李相旭·松本武祝 역(2014), 「韓國協同組合の歴史と動向」, 『共濟綜合研究』 69, JA共濟綜合研究所, 137~138쪽

· 어선 기관사 양성 및 강습·어선 개선 시설·수산물 판매조사·도 수산회 보조금 지급·기타 수산업 개량 및 발달을 위한 지도 장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활동 비용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 수산회는 어민 조난구제·어촌조사·수산시험조사·수산제품검사·어획물 공동운반·수산공진회 개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⁵⁰⁾ 조선수산회 및 도 수산회 설립은 일본의 수산진흥정책의 일환이었다. 1935년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가 개최되었을 때 조선조선회 및 각 도의 수산회 임직원 대부분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경상북도 수산회 회장은 포항개발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이며, 부회장은 구룡포 개발의 공로자인 도가와 야사부로(十河彌三郎)와 한국인 문명기(文明琦) 2사람이었다. 또한 ‘경상북도 수산진흥공진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는 부회장으로, 도가와 야사부로(十河彌三郎)는 구룡포어업조합장 자격으로 상무위원으로 배속되었다. 이 두 사람은 공진회 지원을 위한 협찬회가 조직되었을 때도 도가와는 부회장을, 나카타니는 상담역을 맡았다.⁵¹⁾ 이렇게 나카타니와 도가와는 이 일대의 수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핵심적인 주요 인물들이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후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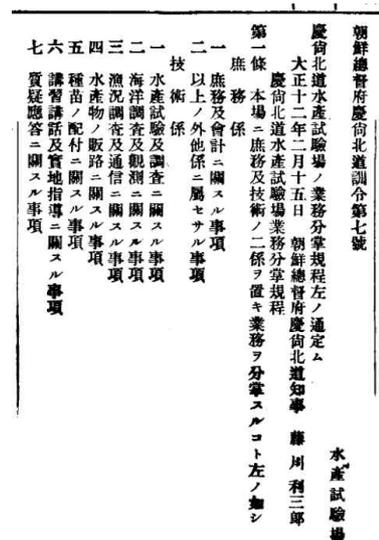
② 경상북도 수산시험장

1921년 조선총독부 산하에 중앙수산시험장이 설치되고 1923년 6월에는 부산 영도에 수산시험장 건물이 완공되어 모든 업무가 이전되었다.⁵²⁾ 그리고 수산시험장의 부속기관인 양어장·지장(支場)·출장소를 설치하여 양어장은 담수(淡水) 즉, 강과 하천의 수산물을, 지장은 바다의 수산물을 각각 전담하여 수산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에도 도립수산시험장이 설치되어 각도에서 관할 운용하였으며, 도립수산시험장은 지역 특산물에 보다 치중하였다. 그리고 중앙수산시험장과 협력체계를 이루었다. 이 운용체계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중앙시험기관과 부현수산시험장과의 운용체계와 거의 흡사하였다.

경상북도 수산시험장은 1922년 9월 29일 기공하여 1923년 1월 12일 완공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3157호(1923년 2월 21일)에는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훈령 제 7호(1923년 2월 15일)’를 공포하여 경상북도 수산시험장의 업무분장규정을 알렸다. 업무를 서무계와 기술계로 분장하여 서무계는 서무 및 회계 그리고 이에 속한 일체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기술계는 수산시험조사·해양조사 및 관측·어항조사 및 통신·수산물의 판로·종묘배부·강습강화 및 실제 지도·질의응답 등 수산에 관한 일체 업무를 관장하였다.

수산시험장의 최초 실습선은 영일어업조합으로부터 기증 받은 발동기선을 개조한 범선 1척과 도비(道費)로 신조한 2척을 합하여 모두 3척이었다.



<그림 9> 朝鮮總督府慶尙北道訓令第七號
* 출처: 조선총독부 관보 제3157호慶

50) 앞의 책, 『조선수산개발사』, 582~584쪽

51) 이기복(2009), 「慶尙北道水産振興共進會」(1935년)와 경북 수산업의 동향, 『역사와 경계』 제73집, 부산경남사학회, 183~185쪽, 189~190쪽.; 『浦項市史』 上권, 424~427쪽.; 『迎日郡史』 367~370쪽

52) 수산시험장은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으로 1921년 설치되었으며, 1923년 영도에 건물이 완공되었다. 지금의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전신이다.

경상북도 수산시험장은 어로부문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청어 잡이에 주목하여 조사 시험한 결과 1923년에 종래의 값비싼 견사제(絹絲製) 청어자망에 비하여 값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면에서 뒤지지 않는 새로운 청어자망을 보급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제조부문에서도 가열 및 찌기구, 어육 투입기·혼합기·절살기 등의 각종 수산 제조 시험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구입하여 고등어·청어 훈제시험·일본식 제조법 가운데 청어가공법인 미카키니신(身缺鱈)⁵³⁾·정어리 가공법인 토마토사아딘(Tomato Sardine)·기타 통조림 등을 제조 생산하여 일본에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⁵⁴⁾

③ 축항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설치되었다. 국고와 지방비로 축성되었는데 임시방편으로 방파제·돌제 등은 공공단체 기금으로 수축(修築)한 것도 있다. 국고로 수축한 것은 긴급 재난 등의 구제사업 및 수산업 진흥 등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다.⁵⁵⁾ 울릉도·독도일대에 수축된 대표적인 예는 형산강과 구룡포를 들 수 있다. 형산강 일대는 1914년 10월 7일 형산강 방제축조공사를 착수한 이래 1931년까지 12차례나 실시되었다. 예로부터 형산강 일대는 홍수로 강이 범람하면 선박출입과 어로작업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홍수가 끝난 후에 어민들이 총동원되어 강구의 토사를 일일이 삽으로 치워야만 했다. 또한 홍수 때는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형산강 일대의 수축공사 및 제방공사를 시도한 것은 영일수리조합장 나카타니 다케사부로이다. 그가 영일수리조합의 초대조합장을 맡은 후 영일, 대송, 형산 방면의 홍수재난을 막기 위해 100마력의 중유기관(重油機關)을 구입하는 한편, 조선총독부에는 끊임없는 지원 요청을 한 결과 처음에 국고 18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던 것이다. 형산강 일대의 십 수차례 실시된 수축공사 및 제방공사에 의해 안전한 항만이 조성되자 수산업은 물론이고 상공업 등 여러 산업분야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구룡포 축항공사는 구룡포에 이주 정착한 도가와 야사브로라는 수산업자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는 구룡포에 이주한 후 개항번영회를 조직하여 한국인 및 일본인 수산업자들을 유치하고 구룡포의 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축항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활동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로부터 공사비를 지원받아 구룡포 방파제와 어항축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후 구룡포는 동해안 굴지의 어업전진기지로, 또한 부산-원산, 부산-울릉도를 오가는 선박 기항지가 되었으며, 구룡포는 단지 수산업만이 아니라 상공업을 비롯한 여러 실업분야의 발전이 이어졌다.

앞에서 제시했던 것 외에도 울릉도·독도 일대의 일본이주어촌의 어업 및 수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본가들이 모여들면서 상공업 또한 발전하였다. 또한 도심을 중심으로 도로확장·철도 및 통신시설 가설 그리고 군청·경찰서·세무서(출장소)·우체국·은행·소방조·의료기관 등과 아울러 수산업자 및 상공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산어업조합·금융조합·상공회의소 등이 설립되는 등 근대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일본이주어촌의 지역 변화는 이주민의 노력과 조선총독부의 보조지원에 의해 이

53) 교토의 특산물로, 청어 산지에서 구입한 건청어에 간장 양념을 한다. 독도 울릉도 일대 지역에서는 신희청어라고 하여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반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한 후 염장 조미하여 말렸다.

54) 『浦項市史』 上권, 426~430쪽.; 『迎日郡史』 370~374쪽

55) 앞의 책, 『조선수산개발사』, 416~422쪽

루어졌다.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2) 수산 주요 인물

①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

나카타니 다케사부로는 영일만에 최초 이주한 일본인이다. 한국사데이타베이스 근현대인물 자료에 의하면 1871년 효고현에서 출생하였으며, 1896년 9월 한국 수산상황시찰을 한 것이 계기로 1898년부터 경상도 및 강원도 일대의 해산물·곡물·잡화 등으로 무역상을 시작하였다.

포항에는 1899년에 근거하였다가 1904년부터 정착하였다. 1935년 현재 경상북도 포항읍에서 부친(中谷清吉)과 부인(中谷寅野) 그리고 3명의 아들<장남 中谷清章(1901년생. 早稻田大學 졸업)·차남 中谷辰夫(同志社大學 졸업)·삼남 中谷勝紀(北海道大學 졸업)>과 거주하였다.

1910년 단세이상점(淡盛商會)의 지점⁵⁶⁾을 운영하여 많은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해에 일본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10년 봄 여천동 화재로 건물 24호가 전소하는 대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 화재예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1912년 2월 포항소방조(浦項消防組)를 창설하였다. 발기인은 지역주민, 하마다 유이찌(濱田維一), 후쿠시마 이히라(福鳥伊平)이며, 이때 나카타니는 조장(조두)을 맡아서 화재 대비를 위해 소방수 35명을 편성하고 펌프 1대를 구입하였다. 이것이 포항 최초의 소방서이다.

1915년 영일어업조합장, 1916년 영일수리조합장으로 형산강 일대에 발생하는 홍수 재난 구제를 위하여 중유기관(重油機關) 구입 및 조선총독부 국고 180만원으로 형산강일대의 축방공사를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는 경북어업주식회사와 공영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 1930년대에는 포항운수주식회사·경북수산주식회사·조선축산주식회사·경북물산주식회사·中谷竹三郎상점주식회사 등 5개소 대표로 여러분야에서 자본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영일어업조합장, 영일수리조합장, 포항금융조합장 등 당시 나카타니의 경력은 매우 화려하다. 나카타니는 이와 같이 울릉도·독도일대의 일본이주어촌의 수산 어업분야 등 여러 산업분야의 발전을 견인했다.

한국사데이타베이스 근현대인물자료에서 흥미로운 것은 “경상북도의 원로·온후한 성격이고 한 번 일이 주어지면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는 성에 차지 않는 왕성한 의욕과 공공정신이 넘치는 사람·관민과 교류가 두텁고 신망을 얻음·항상 동분서주하며 공사에 진취적임”이라는 나카타니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 둔 점이다. 이 글에서 당시 나카타니 다케사부부가 조선총독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이주어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반면에 조선총독부의 후원 속에서 지역의 부와 권력을 확보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나



<그림 10> 中谷竹三郎

※ 출처:부산일보 1933년 2월 15일

56) 淡盛商會는 부산에 본점을 두었던 가족기업회사였으며, 곡물·해산물·면사 등을 취급하였다.

카타니의 조선총독부에 대한 충성심은 당시 부산일보에서도 발견된다.

부산일보 1929년 4월 9일자 9면 1단의 「内鮮 合同の 浦項商工會生る 會長は 中谷竹三郎氏」 및 부산일보 1933년 2월 15일자 2면 1단의 「중추원 개혁 실시와 전선 내지인 참의 후보 평(16) : 내선융화에 활약한 수완과 인망의 대표적 인물 경북도평의원 中谷竹三郎」은 기사제목에서도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협력자라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그리고 부산일보 1933년 10월 20일자 3면 2단에는 「中谷竹三郎翁 銅像 除幕式」이라는 기사가 있다. 이 제막식 행사는 같은 달 10월 17일에 이미 치루어졌었다. 지역에 동상을 세울 정도로 당시 나카타니 다케사부로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다.



부산일보 1929년 4월 9일자 9면 1단



부산일보 1933년 2월 15일자 2면 1단



부산일보 1933년 10월 20일자 3면 2단

② 도가와 야사브로(十河彌三郎)

도가와 야사브로는 구룡포의 근대사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현대 인물자료에 의하면 그는 1875년 10월 오카야마현(岡山縣 兒島郡 山田村 大字後閑)에서 태어났다. 1935년(60세) 현재 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구룡포리에서 배우자 도가와 가쓰노(十河勝野, 1879년 8월)와 자녀 3남 3녀<장남, 도가와 간지(十河函二, 부산상업학교 중도퇴학)·차남 도가와 가오루(十河薫, 1926년 생. 대구상업학교 졸업)·3남 도가와 가쓰미(十河勝己, 1918년 생. 八幡中學校 졸업)·장녀 도가와 가즈에(十河一江, 1913년 생. 岡山山陽女學校 졸업)·차

녀 도가와 가타고(十河鈺子, 1916년 생. 八幡女學校 졸업)·3녀 가나코(カナ子, 1919년 생. 宇部女學校 졸업)와 함께 거주하였다.

도가와가 최초로 한국에 온 것은 1899년이며, 오카야마현 어업가들과 부산에서 근거하였다가 1902년 8월에 경북 모포로 와서 정어리 제조공장 및 그물공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그리고 1908년부터 구룡포에서 정착한 후 구룡포의 어업발전을 위해서 구룡포 축항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17년 ‘구룡포항만수축기성회(九龍浦港灣修築期成會)’를 조직한 후, 구룡포항 축조를 위해서 자비 30만원을 기부하여 회원들의 후원을 이끌었다. 그리고 1922년에는 구룡포어업조합을 설립하여 어업개선을 위한 어업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어획물의 공동판매를 실시하여 어물가는 토의를 반드시 거쳐서 공평하게 설정하는 등 구룡포 어업 발전에 앞장섰다. 도가와는 당시 조합원들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조합원은 일본인은 물론이고 한국인도 있었지만, 도가와는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도가와가 처음 한국에 건너왔던 1899년은 일본 수산진흥정책의 일환인 원양어업장려법(1897)과 관련이 없지 않다. 이 법이 공포된 후 일본의 각 부현 어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으로 출어하였다. 즉 도가와는 정부의 수산진흥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구룡포에 정착하기 이전에 개정 공포된 원양어업장려법(1905)설에 대한 정부의 취지 또한 잘 알았을 것이다.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했던 주목적은 한국 내 일본이주어촌건설이었던 점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리고 덧붙이면 1904년 러일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12월 농상공부 수산국의 시모 케이스케 외 1명이 한국 내 일본이주어촌 건설 예정지를 조사하고 돌아갔다. 이들의 임무 내용은 그들이 작성 보고했던 「한국수산업조사보고서」(19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주민과 일본정부에 대한 요청 항목들이 있다. 이주민에 대한 항목 중에는 “일본이주어촌에 정착한 일본어민에게 한국 풍습을 익히게 동시에 한국민에게도 일본의 풍속에 동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감독자를 두고 각지에서 이주해 오는 어민을 통일 정리하여 질서가 있는 어촌을 형성할 것·근거지 어업을 위하여 개시장(開市場)으로 하여 일본 선박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것” 등이 있으며, 정부에 대한 항목에는 “통어자 및 이주민의 조합을 결성할 것·이주지에 통제 감독 및 업무 지도할 것” 등이 있다. 이 내용들은 도가와가 구룡포에 이주한 이후 그의 활동과 잘 부합된다. 도가와는 오카야마에서 온 일본이주민으로 조선총독부에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일본이주어촌을 이끌며 지역의 경제력과 권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이다.

도가와 야사브로는 구룡포어업조합장·경상북도 수산회 부회장(의원 겸)·경상북도 평의원 1924년 선출)·경북수산주식회사 감사·농산어촌진흥조합장(農山漁村振興組合長)·학교조합의원·위생조합장·재향군인회 분회고문·구룡포소방조 고문·번영회장·구룡포전기주식회사 전무·동해산업주식회사(東海産業株式會社) 사장 등 그의 활동과 경력은 무수하다. 그의 경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 구룡포 방파제와 어항축조의 완성을 이끌어낸 점이다.

이외에도 도가와 야사브로의 수산물 제조회사는 염장품·건어물 등 일반적인 수산제조가공품 외에도 정어리 유비(油肥)·통조림·양초·비누 등 근대를 상징하는 제품을 생산하였다. 당시 양초와 비누의 주원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정어리유였다.⁵⁷⁾

현재, 구룡포역사공원은 도가와 야사브로 송덕비(十河彌三郎頌德碑)가 세워져 있다. 지금은 비의 내용이 훼손되어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송덕비라는 사실

57) 박경용(2004), 「한·일 어업협정의 영향과 어민들의 대응전략」, 『역사민속학』 18, 한국역사민속학회, 254~257쪽

에서 구룡포 발전에 앞장섰던 그의 공로를 칭송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는 1944년(69세) 그가 사망한 후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가 사망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송덕비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939년 6월 20일자 부산일보 「九龍浦 十河彌三郎翁 功勞頌德碑 建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송덕비 내용에 대한 작은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자.

‘九龍浦 十河彌三郎翁 功勞頌德碑 建設 - 近く石材其他到着’

구룡포 항만개척자로서 잘 알려져 있는 구룡포 본래 도회의원인 도가와 야사브로(十河彌三郎)는 구룡포 발전을 위하여 무릇 인정하는 공적을 수행하며 다년간 헌신해 왔다. 특히 어업조합을 대정 11년(1922) 설립하여 18년간 어업조합장으로서 수산계의 개발 진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지금의 번영(殷賑)된 구룡포와 같이 도가와 씨의 매우 큰 공적을 영원히 남겨 전해야 한다. 어업계에서 공로송덕비를 세우자고 결정하여 석재도 머지않아 도착할 것이고, 비문은 포항의 어조이사 세토 가즈요시(瀬戸一由)가 입안을 집필할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어업조합 또는 신사(神苑)의 경내로 결정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하시모토 젠키치(橋本善吉)옹에 대해서도 공적을 인정하게 되어 시민 일반으로부터 공적비를 나란히 세우게 되었다.(부산일보1939년 6월 20일자 4면 6단)

비문에 새겨진 내용은 훼손되어 알 수 없지만 이 기사를 통하여 도가와가 구룡포의 발전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도가와 야사브로 외에 일본인 2명을 거론하였다. 그중에 하시모토 젠키치(橋本善吉)라는 사람의 공적비에 대한 언급에서 하시모토 또한 구룡포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당시 이주어촌에서 존경받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九龍浦 十河彌三郎翁 功勞頌德碑 建設
※출처 : 부산일보 1939년6월20일자 4면 6단



<그림 13> 十河彌三郎 頌德碑
(2018년 12월 31일 촬영)

③ 하시모토 켄키치(橋本善吉)

하시모토 켄키치(橋本善吉)는 시코쿠의 가가와현(香川縣) 출신으로 1909년 구룡포에 이주하였다. 가가와현 어부들이 구룡포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04년 이후이며, 1904년 상어·삼치유망의 출어, 1906년 오다 선단(小田組) 고등어 유망어선 80척 출어 그리고 1909년에 방장출어단(防長出漁團) 고등어 유망어선이 연이어 출어하면서 이주하였는데 특히 1909년 방장출어단(防長出漁團)의 높은 어획 성과가 알려지면서 구룡포에 보다 많은 일본이주자들이 몰려왔다. 이주자 중에 가가와현 출신의 이주자가 약 70%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가가와현민회를 조직하는 등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상호 권익을 보호하였다. 하시모토는 현민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시모토는 1909년 구룡포에 와서 매제, 우에무라 쿠라타로(植村倉太郎)와 공동으로 선어 운반업을 하였는데 아마도 1909년 방장출어단의 고등어 풍어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시모토는 구룡포에 이주한 이해 선어운반업 외에 여러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⁵⁸⁾

<표 4> 橋本善吉의 경력

설립일자	회사명	직책	본점
1928.06.15	滄洲酒造(株)	대표	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구룡포리 259
1928.11.20	木浦酒造(株)	이사	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대포리 886
1929.04.20	迎日麴子製造(株)	이사	경상북도 영일군 포항읍 포항동 890
1930.11.06	九龍浦鐵工(株)	대표	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구룡포리 223
1937.04.24	九龍浦油肥製造(株)	이사	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구룡포리 243
1936.12.15	浦項藥酒(株)	이사	경상북도 영일군 포항읍 포항동 109-8
1937.08.24	迎日灣漁業(株)	이사	경상북도 영일군 포항읍 포항동 391-1

앞의 표에서 확인하였듯이 하시모토는 구룡포에 정착한 후 식료품제조업·금속기계공업·수산업 등 그의 경력은 매우 다양하다. 이 업체들은 모두 주식회사로 공동출자회사였다. 그리고 이 회사 중에 주목을 끄는 것은 구룡포유비제조(주)·영일만어업(주)인데 모두 어망 및 어구 공동구입·어업자금 대부·어업경영권 대부 등을 운영하는 회사였다. 이는 구룡포를 비롯한 영일만 일대의 어업자들의 편익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업경제권을 장악하며 부를 축적하였던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구룡포 유비제조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오카야마현 출신의 도가와 야사부로(十河彌三郎)가 대표, 가가와현 출신의 하시모토가 감사였다. 이 사실은 구룡포에 이주했던 초기에는 이주자들 간에 각 부현(府縣) 별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자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58)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pre_page=1&setId=6&totalCount=6&kristalProtocol=&itemId=ch&synonym=off&chineseChar=on&searchTermImages=%E6%A9%8B%E6%9C%AC%E5%96%84%E5%90%89&brokerPagingInfo=SnUpYrZZuHlxMzHLMdPQRSi0k0mUUpCDsHuCGHyKLMNd0f0h&selectedTypes=&selectedSubjectClass=&searchKeywordType=Bl&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6%A9%8B%E6%9C%AC%E5%96%84%E5%90%89&searchKeywordConjunction=AND&searchKeywordType=Bl&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6%A9%8B%E6%9C%AC%E5%96%84%E5%90%89&searchKeywordConjunction=AND(검색일:2023.09.20.)

그리고 부산일보 1932년 7월 22일자 「八十五名の戸税を代納-橋本善吉の美擧」라는 제목의 기사는 하시모토의 선행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하시모토가 구룡포 일대에 작년(1931)에 불황이 있었을 때에 하층민(어업자들을 말하는 것 같다)들을 위하여 세금을 대납하여 구제(救濟)하였는데 올해(1932)도 불황이 연이어지자 하시모토가 또 이들의 세금을 대납하여 구제하였다는 미담이다.

이 기사만으로 하시모토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는 개인의 부만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업가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인물로 짐작된다.

현재 ‘구룡포근대문화역사거리’에 가면 당시 일본이 주어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일본식 목조가옥 중에 눈에 띄는 건축물은 1923년 지은 하시모토의 2층 가옥으로 현재 구룡포 근대역사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옥은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인데 당시 하시모토가 직접 일본에 가서 건축자재를 구입해 지었다고 한다.

‘구룡포근대문화역사거리’는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부를 안겨주었던 변화한 역사 현장이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어업권을 침탈당한 아픈 역사 현장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4>부산일보 1932년 7월 22일자 3면 5단

④ 하마다 이와(濱田 惟和)

하마다는 1896년 도야마현에서 출생하였다. 1914년 18세의 나이로 영일만 동해면에 이주하였으며, 당시 청어어업이 유망하다는 인식한 후 어업 개량연구에 힘쓴 결과, 청어 그물을 고안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이 그물은 당시로서는 신식 청어 그물이라고 좋은 평가 받았다. 하마다는 어장개발 또한 주목하였는데 당시 울릉도·독도 일대의 영일만·강구·감포 연안에는 그의 소유 어장이 30곳이 있었으며, 그는 어업가로서 명성이 높아서 그는 이 일대에서 어업왕 또는 수산왕으로 불렸다.

그리고 하마다는 어장 경영 외에도 제빙·냉장·수산물 유통업과 더불어 활어운반업을 개시하여 동해안의 활어를 일본으로 운송하였다.

1935년에는 동해조(東海組)를 조직하여 함경북도 2곳, 함경남도 6곳 등 10곳을 경영하였으며, 수십 척의 운반선으로 한국 내는 물론이고 러시아령의 연해주·감차카반도로도 진출하여 수산물을 구입하는 활발한 교역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하마다의 운반선은 원양어업보다 연안 어업 형태로 교역을 하였다.

그리고 1928년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하마다가 大浦郵便所 소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하여 하마다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되며, 또한 당시 하마다는 어업과 공직생활을 겸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마다는 1930년 10월 영일어업조합 총대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어업진흥에 매진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일어업조합 인근에 그의 공덕비를 세웠다고 한다.⁵⁹⁾

59) 부산일보 1930년 10월 22일자 11면 4단 「迎日漁業組合 總代會-組合長の改選선거-濱田惟和氏 當選」

順	禮	甘	韶	龍	盈	春	安	榮	義	體	善	壽	若	安	長	玄	眞	興	寧	清	開	漆	俊	慈	慶	高	清
興	浦	川	宮	德	陽	康	州	城	泉	山	島	木	溪	琴	風	寶	海	基	寧	寧	河	谷	館	仁	山	靈	大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幸	會	丸	片	來	栗	出	小	片	石	岡	岡	古	丸	高	上	酒	木	岩	佐	廣	久	廣	久	廣	廣	廣	
宗	宮	田	山	櫻	野	山	林	岡	井	崎	賀	田	高	上	井	下	崎	藤	瀨	野	野	野	野	野	野		
次	本	杉	地	光	野	野	心	真	之	朝	賀	田	上	上	下	太	子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和	寬	太郎	才	之	後	治	要	一	助	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東	吉	大	喜	助	野	作	心	六	之	朝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陸	村	南	大	尾	火	邱	倉	慶	大	邱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星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金	平	伊	濱	李	富	德	有	梅	入	久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野		
繁	川	澤	田	道	野	本	山	本	江	比	比	比	比	比	比	比	比	比	比	比	比	比	比	比			
石	根	維	和	哲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根		



<그림 15> 濱田 惟和
출처 : 부산일보 1935년 10월 9일자
6면 10단

<그림 16> 濱田 惟和 大甫郵便所長(11급수당)
*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조선총독부 직원록(1928년 조사)
조선총독부 직속-체신관서 부산우편국부장구역 우편소 경상북도편

이후에도 하마다는 각종 조합 및 단체에서 조합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또한 각종 기업체에서 공동출자자로 중역으로 활약하였으며 1937년 8월 24일 설립된 迎日灣漁業(株)에서는 공동 출자자 중 대표직을 맡았다. 이 회사는 어업 경영·어업자금 및 어업권 대부·어망 어구 공동 구입 등의 업무를 실시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하마다는 수산왕의 자리만 고수하지 않았다. 1941년에는 대구부 동운정 297-2에 설립한 大邱日日新聞社(株)에서도 중역으로 활동하였다.

⑤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하타모토 키치쥬(畑本吉造)

두 사람은 울릉도·독도 일대에 근거했던 초기 일본어업자들이다. 당시 울릉도에 근거했던 일본인들은 대부분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건너왔다. 초기에는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를 중심으로 한 도젠(島前) 출신과 하타모토 키치쥬(畑本吉造)를 중심으로 한 도고(島後) 출신들이 몰려와 울릉도 어장을 둘러싸고 경쟁 어업을 펼치며 잦은 분쟁을 일으켰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닛쇼조합을 결성하였다. 닛쇼조합의 최초 임원은 총 16명이었으며, 하타모토 키치쥬가 초대조합장으로, 와키타 쇼타로가 이사로 각각 선출되었는데 하타모토가 이듬해 귀국하면서 와키타가 제2대 닛쇼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닛쇼조합은 당시 일본이주민들의 민형사상 소송을 재판하고 상벌을 시행할 권리를 가졌던 막강한 단체로 이주어촌에서의 경쟁적 행위를 금하고 조합원들의 질서와 안전을 지켰다. 1907년 일본인회가 조직되어 닛쇼조합은 폐지되었다.⁶⁰⁾

울릉도·독도에 이주한 일본어부들은 처음에는 강치·전복 해삼 등을 어채하였지만 이곳의 오징어가 최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한 뒤에는 오징어 어업이 경제기반을 이루는 주업이 되었다. 그리고 울릉도의 도민들 또한 오징어어업에 종사하면서 울릉도는 한국 최고의 오징어어장으로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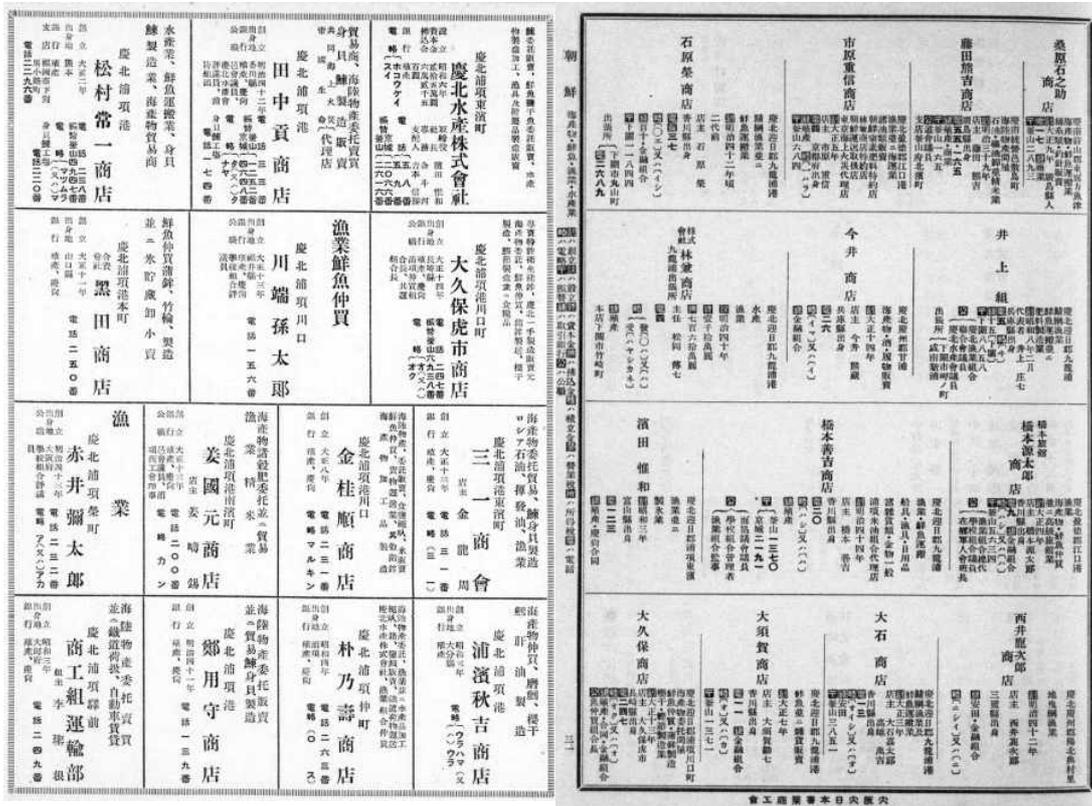
60) 앞의 논문,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64~68쪽.

⑥ 기타

울릉도 독도일대 지역에 이주했던 일본인 중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사구(砂丘)·황무지 등의 국유미간지를 대부분은 후에 불하받아서 방대한 토지 및 개간지를 확보하게 되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다.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세토구치(瀬戸口)·산조오(三藏)·오츠카 쇼지로(大塚昇次郎)·오우치 지로(大内治郎) 등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간행한 『日本商工録』(大阪日本商工社, 1934)·『公認大日本商工信用録』(日本實業商工会, 1935) 등에는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상공업자들의 사업체에 대한 약력을 표시하여 사업체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전술했던 사람들의 사업체도 다수 발견된다.



<그림 17> 『日本商工録』昭和9年(1934)

<그림 18> 『公認大日本商工信用録』昭和10年版

※ 출처 : 大阪日本商工社, 『日本商工録』昭和9年(1934), 20쪽

출처 : 大日本実業商工会, 『公認大日本商工信用録』昭和10年版, 27쪽

IV. 맺음말

수산물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하면서 인간들에게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영양분을 특특히 공급하였다. 근대에는 수산물에 대한 유용성의 가치가 밝혀지면서 식용만이 아니라 공업화 등의 경제 생산적인 측면

에서도 주목하게 되었다. 더욱이 유럽 각국은 만국박람회를 통하여 출품과 함께 수산물에 대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였으므로 수산물의 활용성은 점점 다각화되었다.

일본은 1873년 빈 만국박람회에 출품 참여한 것을 계기로 수산물에 대한 지식 정보를 확보하고 수산물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산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수산진흥사업은 농상무성 산하의 농무국 수산과(이후 수산국)에서 전담하였다. 그리고 1882년 민간에서는 수산단체인 대일본수산회를 결성하여 국내의 수산정보 및 유럽의 선진 수산 지식 정보 등을 홍보하는 회보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수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889년 근대수산전문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이후 수산강습소)를 개소하였다. 당시 농상무성의 수산기사(기수)들은 대일본수산회에서 간사장·간사·의원 등을 겸직하였는데 수산전습소가 설립된 후에는 이곳의 교사를 겸직하게 되었다. 이 두 곳은 그야말로 수산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농상무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산진흥정책에 의한 맞춤형 업무 및 교육이 이루어졌다.

농상무성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산진흥사업은 내국수산박람회로, 근대 일본수산사에 큰 획을 그었던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제1회 박람회를 통하여 전국에 현존하는 수산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에 대하여 여러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시험을 실시하였다. 즉 제1회 박람회는 수산진흥정책의 시작이자 준비단계를 완수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897년에 개최한 제2회 박람회는 수산진흥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1897년은 원양어업장려법을 공포하여 발동기를 장착한 선박과 원양 선원들을 겸비한 선박회사에 적극적인 지원 장려에 따라서 범선은 동력선으로의 교체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동력선을 운용할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대일본수산회 소관이었던 수산전습소를 수산강습소로 승격시키고 교육과정을 신설 확장하였는데 신설 과목 중 원양어업과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신설 과목 중에 교원양성과는 당시 각 지방에 부현 수산강습소가 설치되었는데 이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원양어업장려법 공포, 수산강습소의 원양어업과 신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897년은 수산진흥정책이 국외로 확장 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법이 공포되기 전, 1883년에 체결되었던 조일통상장정은 종래 일본 어부들의 한국연해 밀어문제와 넘쳐나는 실업어민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으며, 일제가 한국연해를 법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일제는 이 장정을 빌미로 한국연해출어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상무성 수산기사들을 한국연해에 파견시켜 한국연안수산조사보고서를 간행하는 등 일본 어부들을 대거 한국연해로 출어시켰다. 더욱이 1889년 한일통어장정이 체결되었던 그 해에는 부산수산회사가 설립되어 일본출어자들의 행정 수속 업무 및 어획물에 대한 일체를 대행하였으며, 별도의 어시장까지 마련하여 일본출어자들은 어획물을 어시장에 납품만 하면 되는 유통경제시스템을 갖추어 일본출어자들의 편익을 제공하였다. 부산수산회사의 설립과 원양어업장려법은 한국연해출어시책과 연동되어 한국연해에는 일본 출어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독 통제가 필요했다.

1902년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을 공포하여 각 부현별 조선해통어조합(이후 조선해수산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여 한국연해로 출어하는 어민들을 강제 가입시킨 후 이들에 대한 감독통제가 가해졌다. 그리고 1907년에는 조선해수산조합본부를 부산에 설치하여 부산수산회사에서 대행했던 일본 출어자의 업무 중 어획물 위탁판매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이곳으로 이관시켰다. 이 조합본부는 통감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곳에 수산기사들이 파견 상주시켜 일본출어자들의 보호 및 감독 단속을 하였다.

그리고 1905년에는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하여 조선 내에 일본이주어촌 건설을 추진하였는데 이 임무를 수행한 곳이 조선해수산조합이며, 이곳에 파견된 수산기사들이 앞장섰다.

한국 내에 일본이주어촌 건설지는 주로 배를 댈 수 있는 곳으로 일본 어부들은 대부분 해변 인근에 근거지를 삼았다.

울릉도·독도 일대에 형성된 일본이주어촌은 1905년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하기 이전부터 일본출어자들이 근거했던 자유이주어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후 보조지원을 받으며 자유이주어촌과 보조이주어촌의 융합된 양상을 보였다. 이주어촌에 정착한 일본 어부들은 동력어선 및 잠수기·포경기·개량 그물 등의 선진 어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이곳의 지역민들은 일본어민들의 어획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일본어민들과의 경제상 격차는 물론이고 한국연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부들의 주무대로 변모해 갔다.

한일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는 전 지역에 수산조합·어업조합을 설치하게 한 후 한국인들도 강제 가입시켜 식민 지배의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더욱이 일본인 조합장은 조선총독부의 요구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수산개발을 위한 촉항 및 방파제, 제방공사 등을 요청하여 국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일본이주어촌은 어업전진기로서, 선박의 기항지로서 그리고 상업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수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상공업 등 여러 산업분야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주어촌에 수산제조회사가 곳곳에 많이 세워졌는데 일본 어부 중에는 어업과 동시에 겸업하여 운영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주어촌에 정착하기 전에 이들은 일본에서 부현 수산강습소 및 수산시험장에서 어로·제조·양식 등에 대한 강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로 이들이 운영하는 수산제조회사는 염건어 등의 기본적인 제품을 취급하는 곳도 있지만 근대를 상징하는 통조림·정어리 유비·고등어와 청어훈제 가공식품·미카키니신·양초·비누 등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수산물 신제조기술에 따른 수산진흥사업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 수탈이라는 양면성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일본산 수산물수출품은 순수 일본산이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당시 울릉도 이주어촌에 정착했던 일본어민들은 고품질 울릉도산 오징어를 잡아 오키섬으로 대거 수송하였다. 오키섬은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오징어 수출산지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오징어 수품품에 대한 강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1910년 일본인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던 『한국수산지』 제2집에는 이 의문을 풀어주는 기록이 있다. 일례로 한국산 주요수산물에 대한 1901~1908년에 대한 통계에 대한 기록에서 “전복은 일본인이 잠수기로 채취하여 근거지에서 건제하거나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부산·원산·목포 등의 개항장으로 수송한 후 나가사키·고베로 운반하면 해당 지역에 거류하는 중국(淸國) 상인의 손에 의해서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 설명은 당시 일본의 수산물 수출품은 순수 일본산이 아니라, 한국산 수산물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더욱이 이 기록은 수산전습소(이후 수산강습소)에서 국가의 수산진흥정책에 따른 수산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제의 수산진흥정책은 한국으로 확장되어 일제의 경제에 막대한 플러스 효과를 주었던 반면에 한국의 수산경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였다.

일본이주어촌에는 어업·수산업·상공업 등 여러 자본가들이 조선총독부에 충실하게 협조하면서 보호 지원을 받으며 지역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부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및 단행본

- 山本由方(1890), 『水産講話筆記』, 福井県内務部
農商務省 農務局(1884), 『水産博覽會審査評語』
關澤明清·竹中邦香(1893), 『朝鮮通漁事情』, 團團社書店
農商務省 水産局(1898), 『第二回水産博覽會事務報告』
農商務省 水産局(1906), 『韓國水産業調査報告』
農商工部 水産局(1908), 『韓國水産誌』, 第1輯(권두사진 朝鮮海水産組合本部)
農商工部 水産局(1910), 『韓國水産誌』 2輯, 389~391쪽
農商務省 水産局(1910), 『日本水産捕採誌』
農商務省 水産局(1913), 『日本水産製品誌』
大阪日本商工社(1934), 『日本商工録』 昭和9年(1934)
大日本実業商工会(1935), 『公認大日本商工信用録』 昭和10年版,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片山房吉(1983), 『大日本水産史』, 有名書房
浦項市史編纂委員會(1999), 『浦項市史』 上권
여박동(2002),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도서출판 보고사
김수희(2010), 『근대 일본 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金奇泰 著, 李相旭·松本武祝 譯(2014), 「韓國協同組合の歴史と動向」, 『共濟綜合研究』 69, JA共濟綜合研究所
요시다 케이이치(吉田敬市) 著, 박호원·김수희 譯(2019),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2. 연구논문

- 한규설(2001), 『漁業經濟史를 통해 본 韓國漁業制度 變化의 100年』, 선학사
박경용(2004), 「한·일 어업협정의 영향과 어민들의 대응전략」, 『역사민속학』 18, 한국역사민속학회
김수희(2005), 「어업근거지건설 계획과 일본인 집단어민」, 『한일관계사연구』 22, 한일관계사학회
김수희(2014), 「일본식 오징어어업의 전파 과정을 통해서 본 울릉도 사회의 변화과정」, 『대구사학』 115, 대구사학회
김동철(2007), 「『大日本水産會報告(會報)』의 한국관련 기사와 사료적 가치(1882-1905년)」, 『韓國民族文化』 30
이기복(2009), 「『慶尙北道水産振興共進會』(1935년)와 경북 수산업의 동향」, 『역사와 경계』 제73집, 부산 경남사학회
이근우(2012), 「명치시대(明治時代) 일본의 조선(朝鮮) 바다 조사」, 『수산경영론집』 43-3, 한국수산경영학회
서경순·이근우(2019),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서경순(2020), 「『日本水産製品誌』의 성립과 내용」, 『島嶼文化』,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송희영(2022), 「한말 울릉도 일본인 사회구조와 일본어민의 독도 인식」, 『영토해양연구』, 23, 동북아역사재단
朴重信·金泰永·布野修司(2005), 「九龍浦の日本人移住漁村の居住空間構成とその変容」,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595号

서경순(2021), 『메이지시대의 수산진흥정책과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편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대학원

3. 간행물

동아일보 1931년 2월 13일자 5면 1단

부산일보 1929년 4월 9일자 9면 1단

부산일보 1933년 2월 9일자 4면 1단

부산일보 1933년 2월 15일자 2면 1단

부산일보 1933년 10월 20일자 3면 2단

부산일보 1930년 10월 22일자 11면 4단

부산일보 1932년 7월 22일자 3면 5단

부산일보 1935년 10월 9일자 6면 10단

부산일보 1939년6월20일자 4면 6단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검색일:2023.09.15.)

한국사데이터베이스-조선총독부 직원록(1928년 조사)-조선총독부 직속-체신관서 부산우편국부장구역
우편소 경상북도편(검색일:2023.09.20.)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pre_page=1&setId=6&totalCount=6&kristalProtocol=&itemId=ch&synonym=off&chinessChar=on&searchTermImages=%E6%A9%8B%E6%9C%AC%E5%96%84%E5%90%89&brokerPagingInfo=SnUpYrZZuHlxMzHLMdPQRSi0k0mUUpCDsHuCGHyKLMNd0f0h&selectedTypes=&selectedSubjectClass=&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6%A9%8B%E6%9C%AC%E5%96%84%E5%90%89&searchKeywordConjunction=AND&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6%A9%8B%E6%9C%AC%E5%96%84%E5%90%89&searchKeywordConjunction=AND(검색일:2023.09.20.)